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며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고난과 십자가죽음 묵상하며 주님 닮아간다!

'2020 사순절 맞아 역사적, 신학적 해석과 실제적인 묵상실천 방안 소개

"수도자의 삶은 사순절의 연속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공동체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지극히 순결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기간 동안 평소 가지고 있던 태만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누르시아의 베네딕트, Benedict of Nursia, 480-ca.547).

사순절은 "거룩한 기간"이다. 그것은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은 우리가 "지극히 순결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게으름을 벗어나 버려진 거룩하신 주님을 좀 더 닮아 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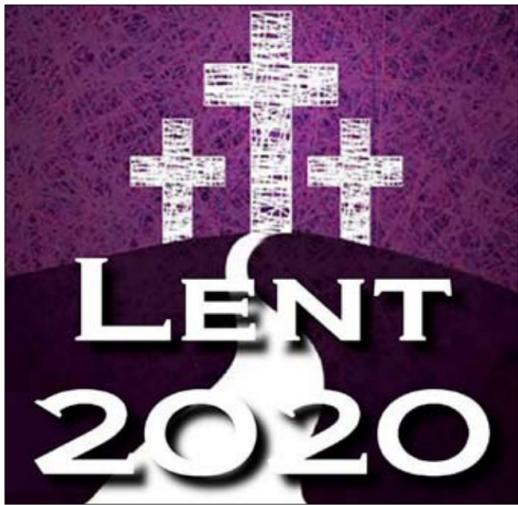
고통에 시달릴 때 자신만이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처럼 쉽게 말한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를 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이 주는 축복이 넘치게 된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다섯 가지 사례를 인용해서 말하고자 한다.

첫째 예전이다. 구약 때부터 교회의 의식에는 언제나 특유한 빛깔을 사용해 거기에 내포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별히 레위기에 제시된 하나님을 위한 제단 앞에서 여러 빛깔이 명령대로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빛깔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력에 따라 설교대(pulpit), 교도대(lectern), 제단(altar), 목사의 가운데침천(stole)을 드리우며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좋다.

(3면으로 계속)



다가오는 26일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은 기독교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이다. 이 절기는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이며, 교회력 중에서 주님의 수난과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때이기도 하다.

이 절기는 특별한 회개일인 속죄일(Ash Wednesday)에서 시작돼 성 금요일(Good Friday)에 마친다. 사순절은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된다. 40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광야의 40일간의 예수의 금식, 시내 산에서의 40일간의 모세의 사건,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순절(Lent)은 예수의 수난(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같이 묵상하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전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고 단순한 고난의 참여만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에서 부활과 승리의 예수를 향하는 성취와 영광에 대한 묵상도 필요하다. 성경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심도 있게 마무리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체포, 고문, 십자가 처형, 죽음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더욱 알고도록 의도한 것이다(마26:1-27:66, 막14:1-15:47, 눅22:1-23:56, 요12:1-19:42).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분이 느끼셨던 그 고통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고통이다. 자신이 어떤 고통이라도 사라지게 하는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가주연합감리교회 교단상황설명회에서 류계덕 UMC한인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수UMC, PSUMC와 NewMC로 남가주 연합감리교회 교단상황 설명회

지난해 2월 특별총회 이후 시작된 미연합감리교회(UMC)의 진통이 새로운 연합감리교회의 출범으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이에 대한 설명회가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16일 오후 4시에 열렸다.

신병욱 목사(로스펠리츠교회) 사회로 열린 이날 열린 교단상황설명회는 지난 2월 3일 총감독회의 의결로 이뤄지고 2월 7일 발표된 교단총회 교단분립 의정서에 의한 것으로 연합감리교회를 PS UMC(Post-Separation UMC)로 분리 후 연합감리교단(진보/중도교단)과 보수성향을 가진 새정통주의 연합감리교단(New Methodist Church)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 웨슬리언약협의회(WCA)와 연대

이는 작년에 열린 특별총회에 상정됐던 안건 중 가장 먼저 폐기됐던 연대적인 플랜(Connectional Plan)과 유사하다. 동성애를 찬성하면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쪽으로 모여서 각자 컨퍼런스를 만드는, 하나의 교단아래 동성애에 관한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3개의 총회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총회당시는 UMC 헌법에 해

당되는 교리장정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해 상정은 됐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류계환 목사(한인총회 선교총무)는 "교단분립의 정서는 특별총회 이후 중도진보주의(미22개 연회)장정불복종으로 결의됐다. 그리고 전통주의 장정 효력이 올 1월 발생됐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인환 목사



3면 개혁의 뱀방울-조진도 목사



7면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에서 싱글을 초대합니다

신앙 안에서 귀한 만남을...

주님의 영광교회는 싱글 남녀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을 위해 글로리 싱글스 커뮤니티를 설립하여 이제 제 2기 만남의 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적으로 초 교파적으로 운영됩니다.

*나이의 제한 없이 모든 싱글 남녀들의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남여의 신청 비율이 맞을 때 연령별로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제2기 만남의 장에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 일시: 3월 28일(토) / 29일(주일)
- 시간: 4:00pm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Hope Center
- 참가비: \$100(1기 수료자:\$50)
- 보내실 서류: 1.참가신청서 2.교회주보 3. 담임목사나 담당사역자 또는 지역 단체장의 추천서,회사 대표의 추천서

*교회홈페이지 gcjc.org에 들어오셔서 안내서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수있습니다. 보내실곳: gloriesingles@gmail.com 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장을 하시고 시간을 지켜야합니다. 문의: 회장 이병만 장로 678-538-7777 디렉터 레슬리조 권사 213-700-6541 주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발행인 칼럼

유(You)와 유(ε υ)에는 순서가 있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미국 청년이 한 눈에 반한 한국자매에게 "Who are you?(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자매는 유씨 성(姓)을 가진 터라 유창한 영어로 "I am Yu(나는 유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듣기에는 "I am you(나는 당신이예요)"라고 들린 것이다. "나는 너야!" 아~아~ 이처럼 의미심장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 한 마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그 형제는 그 자매에게 프러포즈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민족을 뛰어 넘는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러브스토리(love story)가 있다.

"유(ε υ)"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써 "잘했다"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 비유 안에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칭찬한 말이 바로 "유"라는 한마디였다. 이 단어를 한국어 성경에는 "잘하였도다!"로, 영어 성경에는 "Well done!"으로, 중국어 성경에는 "호(好)!"라고 번역해 놓았다. 이 외마디 단어에 충성스런 사람의 일생을 놓고 넓고 깊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원(深遠)한 뜻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9일 밤에 있었던 92회 오스카 영화상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한국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의 수상작으로 불리면서 4관왕에 올랐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역량(力量)을 여실(如實)히 보여준 쾌거(快舉)였다. 이 영화제의 심사위원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엄지 척'(thumbs up)과 함께 "Well done!"이라고 외쳤다. 봉준호 감독에게 쏟아진 찬사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앞서 있었다. "영화가 바로 내 인생이다"는 고백이 앞서지 않았다. 다면 오스카 4관왕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니들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서 개털모자 쓰고 다닐 줄 알아!"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니 천국에 정말 개털로 만든 개털모자가 있는 줄 알았다.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뻔뻔뻔질거리다가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개털모자를 쓰고 천국에서 오고가면 모양이 한참 빠질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적잖이 들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적부터 잘하라는 선생님의 뜻 깊은 마음은 알았지만 천국에는 확실히 개털모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다. 성경에 보니 천국에 개털모자는 없고 그 대신 면류관은 많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등이 있다. 이 땅에서 영화인들의 주는 아카데미 상 받고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Well done!" 했다고 기뻐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시상식에 여러 차례 이름이 불린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Well done!" 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우리에게 유(You)와 유(ε υ)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You)와 유(ε υ)는 순서가 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I am you)"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주님의 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이요 마침내 주님의 "유(ε υ) 잘하였도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유(You)없이 유(ε υ)는 없다. 사랑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마침내 감동과 칭찬을 자아낸다. 하늘 면류관 4관왕이 되려면 먼저 주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

절망 중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Her.meneutics, 카린 리바데네이라의 재정적 어려움에서 찾은 하나님 은혜 소개

카린 리바데네이라(Caryn Rivadeneira)는 CT 블로그(Her.meneutics)의 고정 기고가이며, "파산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풍요(Broke: What Financial Desperation Revealed about God's Abundance)"로, 무일푼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담하게 전해준다(Blessed Are the Broke...and rich are the financially desperate. Just ask my family).

풍요할 때인가 주릴 때인가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이 우리 분수에 넘칠 정도로 쏟아 부으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이러한 풍요를 원하지 않았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고령적인 수입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믿음과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역으로 들어와 탁자에 봉투를 올려놓으면서 말했다. "열어 봐." 봉투 안에는 일사분기 수입이 들어있었다. 액수를 보니 전년도의 일 년치 수입보다 많았다. 나는 남편을 끌어안았

미를 제대로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풍요롭던 시절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셨다. 그러나 손에 수표를 들고 부역을 돌려주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

내가 굶주림의 시기를 겪기 전에는 가난한 자-영적으로 그리고 달리-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도 알지 못했다. 또 초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굶주림'의 시기, 즉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전혀 대책이 없을 때, 집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던 때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 우리는 이제 빈털터리가 됐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하던 가장 절망적인 날, 나는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일까?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사실일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내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그 시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이 반짝이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축복의 의

가장 복된 일

록이 무성한 도시 근교에서 자라고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동정을 받고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들 다닐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에 대해 알지 못했다. "복 받은" 사람들이란 주로 건강하거나 승진을 한 사람들이라고 나는 들었다. 나 역시 그 말에 수긍했다.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축복하신다(아브라함, 솔로몬, 욥을 보라). 내게 이렇게 말했던 친구가 생각난다. "우리는 퍼스트클래스로 업그레이드되는 축복을 받았어. 하와이까지는 긴 비행이잖아."

갈 상태에 있을지라도 소망되신 그분의 손을 의지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과 바울의 고백에 잘 담겨 있다(새내기 크리스천이라면 시편 142, 143편을 보라). 욥에 갇혔던 때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후1:8-9). "메시지"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그 일은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서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주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미스바 회개 금식성회

2020.3.9(월)-11(수)

강사: 조 아브라함 목사 (온누리초대교회담임, 사도행전선교회 대표)
신영철 목사(대구신일교회)
이중인 목사(에스더기도운동, 탈북민센터장)
공영철 목사(예종교회)
송근후 장로(빛의자녀학교 이사장)

대상: 목사, 사모, 전도사, 사역자, 신학생
장소: 뉴욕새힘장로교회(박태규목사 시무)
47-33 Little Neck PKWY, NY 11362

신청: 2020년 3월 2일까지 회비는 무료
총무 마바울목사(718-762-3247)
회계 박드보라목사 (646-789-3737)

* 행사 준비 관례로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주시요.



예수 고난과 십자가죽음 묵상하며 주님 닮아간다!

〈1면에서 계속〉
사순절에는 인내·겸손·고난을 나타내는 보라색을 예전 색깔로 쓰나 좀 더 구분해 속죄일에는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색, 세족 목요일에는 성결을 뜻하는 흰색, 보름요일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희색과 수난의 표이며 승리의 색인 빨간색을 사용한다.

둘째는 참회다. 사순절은 자기 근신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사순절은 예수와 함께 고난

과 죽음으로 향해가는 순례로 이것에는 자기 부인이 포함된다. 사순절에는 자신이 죽는 것을 배워야 한다.

①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②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③특별기간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커피 등 기호식품을 절제해 봄으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셋째, 교육이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 받은 자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고난주간 중에 성례를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녁 기도회는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넷째는 전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었으므로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와 그 구속적 의미를 증거 하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가정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과 연관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구체화해 신앙의 성숙을 위한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①가정에배를 통해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②사순절 달력을 만들고 그

것에 기초해 의미 있는 활동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③가족 단위 세족식을 할 수 있다. ④유월절 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 ⑤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나 외로운 이웃을 찾아 함께 식사에 초청하여 음식을 나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성훈련을 평소보다 한두 가지 더 추가해 성실하게 실천한다면 다가올 부활절이 감격이 없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생생한 잔칫날이 될 것이다.

〈편집부〉

보수UMC, PSUMC와 NewMC로

〈1면에서 계속〉
교리장정을 지키지 않은 처벌이 강화됐고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률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예측됐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목회자그룹과 진보 성향의 목회자그룹 간 싸움이 지속화 됐으며 싸움은 극에 달했다. 싸움을 지속하기보다는 교단분리를 통해 화해를 하려 서로 축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단분리 배경을 설명했다."

류 목사는 "현재는 PSUMC와 NewMC로 분리되지만 보다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의 교단이 형성될 경우 UMC는 3개 혹은 4개의 교단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MC로 교회가 가는 것을 원할 경우, 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임원회는 교단선택을 위한 교인 총회 소집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은 교인 과반수 혹은 3분의 2로 해야 한다. 총회개최가 결정이 되면 감리사에게 알리는데 결정 사항에는 총회 안건과 날짜, 장소가 명시돼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내 총회소집이 돼야 하며 이를 통해 NewMC 가입여부가 결정이 된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PSUMC 소속이 된다.

교회총회 후 개체교회는 교회와 연회가 합의해 정한 분리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사용했던 '연합감리교' 이름과 로고가 들어간 간판과 관촉물 편지봉투 등을 새로운 교단의 로고로 교체해야 한다. NewMC 소속으로 개체교

회가 결정이 되면 교회, 연회, 재단이사회(장), NewMC의 법적 대표자가 함께 서명하는 분리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NewMC와 총회 재무행정협의회는 개체교회와 연회가 쓸 수 있는 분리합의서 기본양식을 만들 예정이며 이 분리합의서는 개체교회에 속한 재산과 연회에 지불해야 할 부채 등에 대해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분리합의서에 연회는 건강보험, 은퇴연금, 그리고 교회보험료 등과 같이 개체교회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액 외에 다른 어떤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다.

분리합의서는 연회와 분리되는 날짜를 2021년 1월 1일 이후로 확정해야 한다. 이 분리날짜는 개체교회에서 새 교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정에 따

라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NewMC 창립총회는 오는 10월 혹은 11월에 열리게 된다.

개체교회의 NewMC 및 연회가입은 분리되는 날짜에 맞춰 이뤄지며 2021년 1월 1일부터 NewMC 교단 활동이 시작된다. 2021년 7월 1일 NewMC에 참여할 목회자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개체교회의 교단선택 최종 마감일은 오는 2024년 12월 31일이다.

NewMC는 교회들의 요청과 총회의 결정으로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연회를 구성할 수 있다. 만일 한인교회가 원한다면 미전역을 하나의 연회로 묶는 특별연회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웨슬리언약협의회(WCA)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박준호 기자〉

〈2면에서 계속〉
그렇다!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부르짖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만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

을 아는 것, 그분의 임재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번영복음에 육되어 움푹달라져 있다고 있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번영복음을 다룬 복음, 고난의 복음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은 다윗이 수렁에서 발견했던, 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찾아냈던, 내가 밀린 청구서와 채권자들의 독촉전화의 무게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던 시절 밤에 깨달았던 복음이다.

너무도 일찍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꿈과 기회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힘들어 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어두운 밤을 지나 새로운 자비의 아침에 선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와 공급을 통해 발견한 복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하나님의 심판인가?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지금 전 세계는 지난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COVID-19)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대처하는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데다 전염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질병이 매우 치명적으로 감염자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므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 병은 이전에 중국에서 발병 창궐한 사스와 중동지역에서 발병 창궐한 메르스보다 감염의 속도가 빠르고 생명이 더욱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지므로 더욱 그렇다. 이 질병의 창궐로 발생지인 중국은 물론이고 이 중국과 밀접한 지역이나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나라일수록 그 경제와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이 질병에 대해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도 질병관리예방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보고에 의하면 해마다 창궐하는 독감이 지난 2019년 10월 이래로 천수 백만 명이 그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중 8천명 이상이 사망했다. 미국의 이 독감은 해마다 찾아오는 질병이기에 심각하진 않지만 다행히 치료백신이 발 빠르게 개발되었고 일종의 계절병이라 느긋한 편이다.

왜 하필이면 중국 우한 지역과 미국에 이러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 창궐할까? 과학자들은 여러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원인을 찾고 그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한발 신종코로나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특히 박쥐를 잡아먹는데 이 박쥐에서 발생했다는 이론과 중국 우한지역에 위치한 생화학무기개발연구소에서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설이 있다. 특히 중국에서 박쥐는 옛부터 행복을 가져다주는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박쥐를 함부로 죽이지 않는 중국 문화 때문에 박쥐를 방치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므로 이 질병이 더욱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었다는 이론까지 등장한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 질병이 우연이 아니라 중국 우한 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의 황제화와 영구적 독재 권력의 정착과 그 강화정책에 따라 기독교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혹독하게 박해해왔다. 그중 우한시가 기독교 박해의 시범지로 설정되어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장이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도 비록 종류와 방법은 다르지만, 기독교를 존중하는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나타내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나라로서 기독교와 그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맞는 지 의문이 생길 때가 참 많다.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복음주의 목회자의 주장에 반해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취하셨으므로 구약에 기록된 질병, 전쟁,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재앙은 더 이상 없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향한 진노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범죄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완전히 중단해 한 것은 아니다. 범죄하는 인간을 향한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며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징벌의 표현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결이후에도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통치와 섭리적 간섭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9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생화학책 / 기원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대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뉴저지 Tel. (201) 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방증,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검진용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지아익스(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히즈핑거 (His Finger)
책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요월 2-28-32
(2) 신약주해: 베드로전서 2:1-10
(3) 논문제목: 복음과 율법 관계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 학개 1:1-8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고시일자 및 장소
a) 일자: 2020년 5월 5(화) - 6(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임마누엘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원택 목사)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응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 소교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5일-6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Rev. Euihan Jang(장의한 목사)
주소: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전화: (603) 553-1991 이메일: euihan@hotmail.com

기타문의
a) 고시부 부장: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b)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양수철 목사
서 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의한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병사에게 뺨을 맞은 교황 (보니파티우스, Bonifatius VIII, 1294-1303)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한신은 동네 건달들이 우리를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바짓가랑이로 지나가라고 했을 때 그 수치를 묵묵히 견디어 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고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지난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을 검찰에서 호출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던 자리에서 잘못하면 천 길 낭떠러지인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수치스러움 때문이 아니겠나 싶다. 중세기 교황은 두 개의 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다스리라는 검과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검이라고 스스로 해석하였다. 고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특징인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영적 권위와 황제에게 기름을 부어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다. 이 역사적 사건은 메로빙조 왕국에서 실제적 권력을 잡게 된 피핀을 교황 보니파티우스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후 왕들은 영적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드물게는 세속의 무력을 의지하여 교황을 갈아치우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허

수아비 교황을 세운 황제들도 많았다. 교황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베드로의 대리자라는 의식이 신앙으로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황제들은 조심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황제들은 교황을 무자비하게 대하곤 하였다.

그런데 역사에서 교황이 무장에게 뺨을 맞았던 경우도 있었다. 바티칸이 공격을 받을 때 지하통로로 연결된 산타안젤라 성으로 피신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거기까지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황이 자신의 별장이 있는 아나니에 있을 때 불란서의 황제가 보낸 무장이 작은 마을 아나니를 정복하고 그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교황의 뺨을 후려쳤다. 수치스러운 사건이었기에 자세한 기록은 생략하였지만 예수님을 조롱하여 머리를 찧던 병사들처럼(막15:18-19), 저들은 교황을 함부로 대했다.

황제에게 뺨을 맞았다 해도 견딜 수 없었을 텐데 하물며 일개 왕이 보낸 무리에게 뺨을 맞았으니 그 수치스러움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평생을 수도사의 길을 걸었고 추기경들의 선거를 통해 가톨릭 최고의 수장의 자

리에 오른 사람이다. 그런 교황이 수많은 무리에 체포되어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뺨을 맞아야 했으니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후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예수님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 구타를 당하셔야 했지만 교황 보니파티우스는 불란서의 필립 왕과 극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가 보낸 무리들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니 말이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받으며 뺨을 맞았으니 눈을 감는 순간까지 받은 수치를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고 말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상대방에게 극심한 수치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상대방에게 당한 수치스러움은 결코 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뺨을 맞은 교황은 전임 교황 첼레스티노 5세를 암력을 통해 물러나게 했고 자신의 대관식에 따라오도록 명했다. 위험인물이라고 여긴 전임 교황을 로마에서 한참 떨어진 휴모네 성(Castello di Fumone)에 감금시켜 버려 거기서 죽

게 했다. 자신을 확대하는 후임 교황을 향해 "당신은 여우처럼 세상에 등장해서 사자처럼 군림하고 개처럼 죽을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교황 보니파티우스는 로마 대학을 창설하였고, 교회법을 성문화 했고 바티칸 도서관을 재건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1300년에 희년을 선포하여 로마를 찾는 자들에게 관대한 용서를 베풀겠다고 하여 20만 명이 로마를 찾게 했다. 순례자 중에는 신곡을 쓴 단테도 있었다.

그는 거만했고, 야망이 대단했고, 세속적이었고 영적인 면은 한참 부족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불란서의 필립 왕과 사이가 나빴다. 즉 영국과 백년전쟁의 전조가 되었던 때, 영국을 공격하기 위한 재정적 모금을 위해 불란서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일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당시 교황청의 큰 수입원은 불란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콜론나 가문을 원수로 만들어버렸고, 콜론나는 교황의 위협을 피하여 불란서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

그런 중에 프란치스코의 사상을 따르는 프라티 첼리파는

교황의 부와 거만함을 싫어했다. 또한 교황이 만든 무수한 자신을 위한 동상과 동상에 행위에 대한 소문들이 교황을 신뢰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여론에 힘을 얻은 불란서의 필립왕은 눈에 가시 같은 교황을 잡아오도록 각료인 기욤에게 군사 1600명을 주어 보냈다. 저들은 로마에서 멀지 않은 별장 아나니에 머물던 교황을 체포하여 망신을 주고 몰리냈지만 나이 많은 교황은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한 달도 못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단테는 신곡에서 그를 용광로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제 8권에 넣었다. 그는 오직 목표만 위해 달랠려고 주변을 돌아보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남긴 교황이었다. 세상 끝날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지만 재위 기간은 겨우 9년 동안이었다. 자신이 9년 만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신의 삶도 언젠가는 끝나게 됨을 명심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임명진 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교회는 건물이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향하여 부르신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의 모두의 삶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일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행복한 것이고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종류나 일하는 장소나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은 이제껏 살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의 서곡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7)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

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

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라는 말은 '때가 되었다' 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이루시려는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고 쫓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를 부르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11-12).

프랑스의 작가 '라로슈푸코'

가 쓴 글에 보면 한 소년이 나옵니다. 이 소년은 유난히 넘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린 많은 돌부리가 그 소년을 넘어지게 하여 그의 무릎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어서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년이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지만 소년이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소년이 다니는 길에 널린 돌부리를 매일 같이 치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자란 줄 알았는데 제 뒤에는 항상 저를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11절).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리더십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못합니

시고 함께 하십시오.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3.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십니다(8).

현대인의 중 상당수가 풍요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풍요병의 특징은 허탈감과 절망감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일종의 무력증입니다. 이 병은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풍요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병은 오로지 남을 위해 나누어 줄 때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돕는 것은 남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돕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면 나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쫓고 쫓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된 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 내보내고, 사랑도 흘려 내보내고, 봉사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축복을 흘려 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는 막히면 안 됩니다. 오물이 흘러가는 하수구든, 피가 흐르는 혈관이든, 물이 흐르는 수도 파이프든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썩든지, 터지든지, 동맥경화에 걸리든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출애굽기 3장 6-12절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십대 청소년 성전환수술은 “범죄” ...주법안 증가세

최근 미 8개 주의 의원들은 십대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가 되도록 “성전환(sex change)”을 하게 하는 이전의 법안들을 무효화 또는 금지시키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반기독교 좌파 주(State)들이 십대들로 하여금 학부모의 허락도 없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성별(몸 부위까지 바꾸는) 성전환치료를 하게 했던 정책들을 없애거나 금지시키는 법안들이기에 반대자들의 비난 또한 높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18세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 후회할지도 모를 신체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성전환수술로 인한 여러 정신적, 신체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 미국보건학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와 같은 단체에서 승인한 성전환 의료지침을 의사가 수행할 수 없게 막는 건 인권 침해라고 강력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

APA에서는 사실상 1973년까지는 LGBT(동성애)는 정신질환이었으며,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만 해도 전역에서 손가락에 뽑힐 만큼의 소수이며 역시 정신질환(Mental Disorder) 명목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운동가들의 압력과 정치세력으로 APA에서는 LGBT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고 조금씩 정상인 것처럼 미화 시키다가 오바마 정권의 친동성애정책이 강력히 펼쳐지면서 온전히 “정상”으로 APA에 기록이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측은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이야기하며 주류 언론들 역시 이런 중요한 뒷 배경은 빼놓고 반대논리만 화려한 말들로 포장하고 있음을 크리스천들은 주목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담대히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의원들

사우스다코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대체요법, 사춘기 차단제 및 성별확인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제공하는 의사에게 1년 감옥 선고형과 최대 2천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사춘기 차단제는 이미 양심 있는 수많은 의

사들에 의해 십대들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Guidelines from the Endocrine Society에 의하면 생식기 수술까지 하는 성전환을 원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18세까지는 기다렸다가 심고숙고 한 후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며 최고는 어른이 되는 21세는 넘어야 그나마 제대로 된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Endocrine Society는 또한 발표하기



를 생식기 바꾸는 수술 전에 받을 수 있는 홀몬주사 또는 홀몬약복용은 아무리 빨라도 16세 이상부터, 사춘기 차단제는 여자와 남자 아이들 몸의 변화가 오는 게 보여지는 나이여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1세가 넘어서부터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기분”과 “감정”으로 한참 혼돈시킨 십대에게 생식기를 바꾸는 엄청난 수술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뇌연구에 의하면 25세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뇌형성이 완성되기에, 25세이전에 생식기를 바꾸는 결정은 이후에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간증자들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수많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런 수술은 절대로 안하는 것이 최고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주리, 일리노이, 캔터키, 웨스트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플로리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을 위해 위험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좋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HB1057를 지지하는 Fred Deutsch 의원은 의사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성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4일에 법안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위험한 약물과 절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감수성이 높은 십대 아이들은 주로 잘못된 호르몬의 수치 높은 복용량으로 자신의 몸을 독살하거나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와 수술 또는 자신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건강한 가슴과 생식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혼돈에 쌓여 이런 건강한 자신모습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들은 어른이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게 혼돈을 좋은 것처럼 확



인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주리 주에서도 처음으로 1월 8일에 이 법안을 도입했는데, 좀더 엄격한 법안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전환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나 부모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기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일리노이 주 의원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9개의 법안은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관련치료를 금지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해롭다는 조사들이 많이 때문입니다.

캔터키와 플로리다의 의원들은 아동에게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전환치료를 해주는 것 자체를 범죄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과되면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및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성전환 어린이를 치료하는 의사는 의료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전문적인 징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법안 버전은 중범죄와 과실로 의료치료를 분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참조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희 교회는 주일은 주로 찬송가를 부르고 금요일 저녁에는 찬송가뿐 아니라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편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성가를 반대하는 자가 많았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성과 같은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이 언제부터 대거 들어오게 되었는지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 20년간은 예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찬송가 외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지? 찬반 토론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이 문제가 자리 잡혀가고 과거의 복음성가가 통합찬송가에도 많이 편입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은” 복음성가가 지금은 통합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LA 남가주의 코스타 메사(COSTA MESA)에 가면 척 스미스(Chuck Smith) 목사가 목회하는 갈보리채플(Calvary Chapel)이란 교회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히피 열풍이 불었을 때에 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한 교회가 갈보리채플입니다. 히피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운동을 소위 예수운동(Jesus Movement)이라고 합니다. 히피(hippie)들은 1960대에 초에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활동했던 반문화(Counterculture)주의자들입니다. 그 특징은 당시 사회의 전통적인 기준 가치관들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락(Rock)뮤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자유연애 및 집단생활을 하며 머리를 길게 기르던 히

전도 받은 히피들로 구성된 마라나타 찬양이 시작

무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이 운동이 한국에도 60년대에 유행하여 젊은이들이 옷도 검은 허름한 잠바를 입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교회는 이들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채플 교회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 수천 명의 히피들이 비처에서 세례를 받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중에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교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척 스미스 목사는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었던 히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성령체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된 자기의 새 인생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마약 먹으며 통기타 치며 세상 노래를 부르던 것에서 이제 영적인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한 곡들이 소위 “마라나타 찬송”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CCM(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목마른 사슴”,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작은 불꽃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런 유명한 곡들입니다. 이런 찬양곡들이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찬송들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교인들과도 많이 부릅니다.

전 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 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수정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0 표시를 하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담임목사 청빙

오하이오 에슈타블라지역에 소재한 에슈타블라 한인교회에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지원자격

1.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으로 목회 경험이 있는자
2. 미국거주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3.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포함)
3. 최종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각 1부 (사본)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5. 추천인(목회자only) 2명이상

제출처

이메일: sddkim206@gmail.com
연락처: (440)822-9390
우편메일: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제출마감: 2020년 3월 15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슈타블라 한인교회

2300 Austinburg Rd., Ashtabula, OH 44004
koreanashtabula@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필리핀의 남부 사마(Southern Sama)

필리핀의 남부 사마족은 술루(Sulu) 군도 안에 있는 파와이-따와이(Tawi-Tawi) 섬...



동쪽의 로티(Roti)에 자리 잡은 사마-바자우(Sama-Bajau)어를 사용하는 모든 다양한 민족들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삶의 모습

사마족은 낚시가 주요 경제 활동인 바다의 부족이다. 그들은 또한 항해무역과 약간의 농업에 종사한다.

해변가를 따라 위치해 있다. 만약 물이 넘으면 그들은 판자나 좁은 다리로 연결을 한다.

이 사마족을 대표하는 것들이다.

신앙

사마족은 거의 모두 수니(Sunni)파 이슬람교도다. 종교적인 사안에 식견을 가진 이만들(Imans, 이슬람교 리더)과 모스크(Mosque) 임원들은 빠끼(paki) 또는 빠끼(pakii)이라고 불린다.

들이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보고된 적도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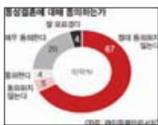
1970년대 초 이래로 술루 군도는 많은 정치적 불안에 경험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목회자 70% "동성결혼 절대 동의 않는다"

미국 목회자 대다수는 동성결혼이나 동성에 시민 연대 활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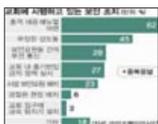


일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24명이 숨졌고 AFP, AP통신 등 외신이 17일 보도했다.



미국 목회자 80% "교회내 총기사고대비"

미국 목회자 10명 중 8명은 교회 내 총기 사고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뒤 미국인 4명 중 1명이 노인" 앞으로 40년 뒤인 2060년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채워지고, 평균수명은 사상 최고치인 85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르키나파소 교회 공격으로 24명 사망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북부의 한 교회가 16

는 2040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고 예측됐다.

미, "북한 코로나 취약우려, 국제지원 준비"

미국이 북한 주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취약성을 우려한다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의 코로나19 문제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 성명서

이들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각종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동일의메아리'는 13일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생산 박차' 제목의 기사에서 '락량봉화피복공장'이라는 곳에서 지난 3-4일 이틀 간 마스크 4만5000여개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성명은 이 같은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막힌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자국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의 폐쇄성 때문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크루즈선 격리됐던 승객 300여명 하선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35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크루즈



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미국인 승객 300명이 귀국 전세기를 타기 위해 하선했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해 있던 미국인 승객 300여명은 귀국 전세기를 타기 위해 16일 밤 크루즈선에서 하선했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한 채 열흘 이상 격리생활을 해왔다.

CNN방송은 하네다공항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미국인 승객들이 1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호와 전세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크루즈선을 탈출한 승객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감독 아래 또 다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한편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알라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미국인 승객 중 4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중남미가 유일한 '코로나 청정지역' 인 이유

최근 이집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6대륙 중 남미만 유일한 '코로나 청정지역'이 됐다.



16일까지 중남미와 카리브해 각국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중남미를 침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거리'를 꼽았다.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직항도 드문 편이다. 아에로멕시코항공이 지난해 중국 상하이-멕시코 시티 노선 운항을 중단한 이후, 베이징-멕시코 티후아나 노선이 유일했다.

교회사

교회사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 교회가 탄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걸여온 모습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1세기부터 시작된 교회가 여러 시대를 걸쳐면서 경험한 내용을 다루기에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다. 역사는 객관성을 강조한다. 특히 원본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역사가의 해석 이전의 내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과 사료에 대한 평가는 결코 획일적일 수 없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교회사는 그 흐름의 중심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전제하에,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내린다. 그러므로 교회사의 범위는 방대할 뿐 아니라 매우 선택적이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핵심내용들을 선택하고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서전을 예로 들어보자. 적어도 그 사람의 출생과 관계된 부모 및 가족에 관한 설명, 성장할 때에 영향을 주었던 가정환경과 친구들에 대한 기록, 취미와 재능 또는 습관과 연관된 내용들, 학력과 경력에 대한 사실들, 개인적으로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과 이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묘사, 나아가서 생을 마감할 때의 모습과 그의 삶이 후위에 끼친 영향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상 다양한 자서전을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어떤 저자는 한 인물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한편, 다른 저자는 같은 인물을 거의 저주스러운 인물로 서술한다. 또한 어떤 저자는 한 인물의 전체 삶을 조명하지 않고, 자신이 드러내길 원하는 특정한 시기 또는 특별한 사건에 집중한다. 역사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진다는 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표현은 역사는 기록한 자의 관점에 의해 후대에 남겨진다는 것일 것이다.

물론 교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를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 객관성을 중시하여 원본사료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할지라도 역사가가 지닌 주관적 의도가 전혀 없는 사실만을 다룰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역사가의 의도를 간파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개혁사

교회사는 16세기에 발생하여 약 1

세기 동안 지속된 '종교개혁사'를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또는 '한국교회사'와 같이 독립적으로 취급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그리고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개혁가 외에도 이 시기에 교회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린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종교개혁사에 대한 서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교와 개신교의 상반되는 입장이다. 로마가톨릭교회는

고 있다. 그 당시 개혁자들과 개혁운동을 억압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부정적이다.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땀을 흘렸던 개혁자들의 의지와 용기를 높이 평가하다 못해, 성경에 긍정적으로 기록된 인물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을 묘사하기도 한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개신교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중세교회 말기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경적 교회의 역사를 탄생시킨 영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구교

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의 목소리를 경청하려하지 않았다. 명성을 얻으려는 한 젊은 수도사의 철없는 저 정도로 간주하고 경하게 취급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운동이 급속도로 유럽전역에 확산되었다. 거기에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올리히 츠빙글리는 스위스 추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개혁가이다. 독일 출신 루터보다 1년 뒤에 태어난 동시대 인물이다. 그렇다면 츠빙글리가 지녔던 개혁정신은 루터로부터 전수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츠빙글리

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전에도 개혁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결국 16세기에 이르러서 개혁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는 하나님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며,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이 답은 종교개혁사 뿐 아니라 교회 역사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배경의 중요성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 하나는 성경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것을 손꼽을 수 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이며, 특정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자칫 '성경문자주의'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종교개혁사라는 교회역사의 한 부분, 특히 그 시작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배경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한다. 특히 중세말기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적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지녀야 한다. 초기에 활동했던 개혁가들은 대부분 로마가톨릭교회에 속했던 자들이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교회 안팎의 신앙적 영향이 어떠한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후대 교회에 남긴 종교개혁 사상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학적 변화 외에도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던 중요한 배경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세말기에 발생하였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흐름의 변화가 종교개혁에 끼친 결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다. 전과 달리 개혁자들의 주장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회전체가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상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사는 중세말기에 등장한 다양한 배경이 개신교의 출발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드러낸다. 또한 종교개혁사에는 근대사회의 출발을 알리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되어 있다. 즉 근대사회의 배경 종교개혁운동을 빼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한 시대의 역사는 오고가는 역사 전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종교개혁사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경험하는 일들을 이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역사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4)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성경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이해해야 '성경문자주의' 오류에 안 빠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흐름 속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했음을 알아야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할까? 역시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 '분파주의자'들이 주도한 '항거운동'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구교를 거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16세기와 17세기 교회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진 살벌한 사건들이 이를 증거한다.

그러나 초기 개혁자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1000년을 지나면서 자리 잡은 중세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원형적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했다. 로마교회에서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이 결코 아니었다. 단지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생겨난 구교와 신교의 분리된 상태에서부터 역행적으로 시도한 해석일 뿐이다.

물론 현재 개신교 전통에서 '종교개혁사'를 독립된 과목으로 취급한다. 이는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교회사 일반에 대한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을 구교의 타락을 대항하여 불가피하게 생겨난 갱신운동이라고 이해하

와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1618년부터 1648까지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30년 전쟁이다. 이 전쟁은 구교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나라들 사이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800만 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잔혹하였고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쟁의 역할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미 종교개혁과 함께 양 진영으로 갈라선 두 교회가, 극단적 방법을 통해 상대를 저주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종교개혁사는 역사가의 의도에 따라 '뿔뿔' 또는 '미화'의 오류에 노출되어있다. 그렇기에 교회가 걸어온 길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얻기 위함이다.

개혁에 대한 갈망

처음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한 마을에서 개혁을 주장할 때에 화형은 몰

는 1518년경 로마가톨릭교회에 대하여 루터와 매우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 그도 성경공부에 매진하여 진리를 터득한 결과, 로마가톨릭교회를 개혁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세말기 교회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 개혁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였으며, 대담하게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확신을 주저하지 않고 드러냈다.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중세말기에 교회의 부패를 지적한 것은 루터나 츠빙글리가 처음이 아니었다. 마치 새벽을 밝히는 여명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와 체코의 얀 후스(Jan Huss, 1372-1415), 그리고 이들을 따르던 자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이미 14, 15세기에 과감하게 중세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외쳤다. 물론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탄압을 받았으며 결국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욱 중요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81~3, (8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2-9988, Fax. 9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사택(0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www.shincheon.org Tel. (82)2-482-4821, Fax. (82)2-482-4822</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2648-4662</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942-6881, Fax. (02)9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 Fax. (82)32-527-1009</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Tel. (82)2-793-7740, Fax. 302-67 (140-031)</p>

리더십 코멘터리 (105)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21세기의 리더십

An Age of Uncertainty

2020년의 개막은 과연 아름답고 희망에 찬 미래를 의미하는가? 과연 지식 폭발의 정보화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황금시대의 도래를 약속할 것인가? 그러나 세계의 석학들은 오늘날의 시대상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풍요와 빈곤, 진보와 퇴보, 희망과 절망이 혼란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세계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다. 세계의 정치, 경제, 비즈니스와 교육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혼돈 상황에서 가장 요청되는 것이 리

더십을 제공하는 리더십이다. 과연 그들은 사람들을 지도할 자질을 제대로 갖추었을까?

향해중인 선장이 귀가 먹고 근시라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자, 곧 있을 무역으로 인한 엄청난 이권에 눈이 어두운 선원들은 저마다 배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키를 잡으려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배를 운전하려면 일년 사계절을 연구하고 하늘, 별, 바람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많은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함을 모르고 있었다. 이렇듯 리더십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이 오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목자 같은 시대적 리더 요구돼 자기수련과 내적신뢰로 성실성 갖춘 리더 정체성 필요

더십이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출현이다. 왜냐하면 리더는 바른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노를 저어 나가는 사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십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는 사근, 도적, 강도가 너무나 많다(요10:1-15). 잠으로 잠된 지도자가 요청된다. 주님이 가르쳐준 리더십 모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실천함으로써 리더십 위기시대를 극복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같은 리더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

성경적 리더가 되는 핵심은 '사명의식, 비전, 목표설정, 자기개발, 팀워크 경영관리'로 요약될 수 있다. 지금 이 시대 지도자 위기의 주된 원인들은 무엇일까? 물론 각 나라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가 진척될수록 사람들의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상승해서 부정부패가 모든 분야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리더 자신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 반론을

Integrity

성실성(integrity)의 상실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격하시켜 온 핵심요소이다. 만약 한 그룹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천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면 그는 신뢰를 잃을 것이고 그 조직은 얼마가지 않아 와해되어버릴 것이다.

고대 희랍 초기 소크라테스는 "위대함에 대한 첫 번째 열쇠는 겉과 속이 같은 삶"이라고 말했다. 성실이란 건전한 도덕적 원리의 자질이다. 이러한 본질적이고 차원 높은 원리들은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석의 아름다운 광택을 보려면 주의 깊게 깎아내고 정성껏 다듬어야 하듯 사람의 성실성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실성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수련과 내적신뢰 그리고 철저하게 정직한 리더가 되려는 결단의 산물이다.

많은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성실성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을 붙잡고 있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1-15절에서 세 가지 유형의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삿

꾼(돈만을 위해 일하는 자)'으로서 자신이 위협에 처할 때에는 도망쳐 버리는 자요, 두 번째가 '도둑'으로 남의 것을 훔치는 자요, 세 번째는 '강도'인데 이는 무기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이다. 이들 모두는 거짓 지도자들로서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할 뿐이다. 거짓 지도자들의 행위는 건설적인 것보다는 파괴적인 것들이 더 많다. 성실성은 모든 리더에게 자질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위기의 시대에 기억해야 할 리더십

지금 기독교와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 오늘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위기, 우리가 당면한 도전은 어떤 것들인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많은 위기와 그로 인한 변화들은 독특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며 급진적인 변화이다. 이전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 변화의 속도는 엄청나고 삶의 모든 영역은 그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변화이고 지금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효율성에 입각해 판단되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권력이다. 교회 내 권위와 권력의 형태가 다양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는 것은 기술이다. 누구나 원하는 순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탄생했다. 정

보의 힘이 권력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설교자가 단상 위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을 확인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목사의 말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목사의 말은 사람들의 주머니 속 기계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된다. 지금은 기술과 힘과 시간이 충돌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는 오랫동안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어왔지만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성장이 일어나지만, 어떤 곳에서는 퇴락하고 있다. 위기가 심각하고 변화가 빠를 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 리더는 변화와 위기의 시대 속에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리더는 누구인가? 세상을 이끄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주님은 리더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

sondongwon@g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집착의 끈

'노인'은 그야말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면 '어르신'은 얼이 신과 같은 사람? 즉 자연과 생명의 이치를 두루 깨닫고 밝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우리 인생이 자연의 숨은 이치를 알고 인생의 지혜와 덕을 나누어 주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러나 그 어르신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은 것 같다. 우리 무언가에 끝없이 의지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부자이고 건강하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온갖 좋은 것들로 자신을 풍꽂 포장하고 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예텐으로부터 쫓겨난 우리 인간본연의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집착의 끈'이 되어 끈질기게 나를 풍꽂 묶을 때 그것들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내 모습에 오늘도 식상한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가 알아주면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누가 밤낮 내 상처를 알아주고 싸매주고 할 수 있겠나... 조석으로 변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인데... 그래서 상대방의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내 스트레스도 스스로 풀어버리는 인격이 진짜는 큰 사람이요 깊은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은 정말 무의미한 일상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줄 알고 큰 문제 앞에서 의연할 줄 아는 어쩌면 이미 치유된 삶을 사는 자이라라.

그렇다. 길을 가다가 흙탕물에 발이 빠진 어린 아이는 그냥 넘어갈 채 일어날 줄 모르고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운다. 일어나 발을 썩 빼면 될 텐데 계속 앉아서 우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이라라. 그런데 우리는 다 큰 어른인데도 계속 환경 탕, 건강 탕, 가난 탕, 남편 탕, 자식 탕... 그놈의 탕 때문에 주저앉아 울고 있지! 그런 삶은 필경은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따지고 원망하는데 삶을 다 소진해 버리는 인생이 되리라.

분명 '집착'과 '집중'은 다른데 말이다. 집착은 중독이라면 집중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는 것이라라. 그리고 그 집중이 한 곳으로 집약되면 그때 거기서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눈이 부셔 다른 것들은 안 보이게 될 때 진짜 영적인 힘은 우리에게 불끈 주어지리라.

어차피 한 치의 앞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라라면, 그 한 치의 앞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 그렇게 내가 안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그냥 놓아버리고 나면 가슴이라도 시원해 지지 않을까. 오늘 급해서 힘들어서 절박해서...라며 구구절절이 구실을 대면서 놓지 못하고 있던 집착의 끈을 놓아버린다. 그래서 이전 날이 부러운 것에... 돈이 없는 것에... 건강하지 못한 것에... 외롭다고 하소연 하는 것에... 집착하여 기운을 다 빼가며 사는 상처투성이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여서 그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명을 다시 맞이하리라.

changsam01020@gmail.com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344-3182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문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 청년부: 오후 1:00 수요 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주일)오전 11:00, (금)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www.kppccseattle.org 4040 N.E. 155th St, Seattle, WA 98125</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한), (254)501-4933(국)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el: (804)560-7500, www.i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www.kucc.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내 마음의 코페르니쿠스



강인국 목사 (미시아나한인교회)

고대 사람들은 태양과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구중심적 우주관(천동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1543년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천체를 관찰하다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태양중심설(지동설)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반발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지만 후대의 천체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로 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관점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돈다는 이 우주관의 변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이 사상은 원래 우주관에 대한 대전환을 말하고 있지만 인문학에서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사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한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는 자라가면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속한 한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아이가 자신이 만물의 주체가 아니라 만물의 객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을 그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가 원래적으로 자의식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주위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최고라는 말을 주입받으면 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아이는 성년이 되어서도 대접받고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어른 아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어른아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미남자

였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여덟 배 더 컸다(삼상9:2). 사울은 어릴 때부터 잘 생긴 놈, 장군감이라는 등의 칭찬 속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자랐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상남자로 자랐고, 이스라엘은 그런 사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왕으로 뽑았다. 가뜩이나 자기중심적인 사울은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대접과 섬김만을 받으며 완벽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기가 높아질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 갈 때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을 겪었고(삼상18:10). 다윗을 자신을 위협하는 자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였

사람은 자라가면서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타인의 생각과

감정과 처지를 생각해주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돕고 협력하게 된다.

국가도 자기중심적인 사상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가 있다. 중국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의 위상에 도전하는 나라를 매우 싫어하고 자신들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약소국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응징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사상으로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여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패권국가로 되어야 한다는 자국중심적인 사상이 강하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에 심취한 후대인들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는 것이 사울보다도 어려워 보인다(삼상15장).

한국은 고대시대부터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현대 정치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한국의 정치가 자기중심적인 정치에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옛 정신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평생

공주병, 왕자병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다.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끊임없이 약자에게 갑질스러운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런 일로 사고가 터져도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는 국민의 아픔과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못하는 당나귀 귀 대통령이 되고, 국민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그 자신은 역사에 탐욕 가득했던 독재자로 기억될 것이다.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항상 타인을 지배하려 들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룰 것이고,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과 빈번히 분쟁하고 불화를 일으킬 것이다.

마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좋아할 것이고, 나누기보다 가지기를 좋아할 것이고, 낮은 곳으로 가기보다 높은 곳에 자신

의 깃발을 꽂고 싶은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을 성공케 해주는 자, 자신을 도와주는 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와주는 자로 전락시켜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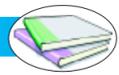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중심적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마22장). 성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생활을 청산하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Joy(기쁨)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을 보았다. J: Jesus first(예수님이 첫째요), O: Others second(타인이 두 번째요), Y: yourself last(네 자신은 마지막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말의 다른 표현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다.

우리가 내 중심적 사상에서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가치관의 전환을 가진다면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

dik0184@yahoo.com

새 책 소개



시집 "커 가는 사랑"

저자 강태광 목사



강태광 목사의 네 번째 시집 '커 가는 사랑'이 출간됐다. "고질병처럼 늘 시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자 강태광 목사는 "행복한 겨울날에도, 설움이 몹서리치는 날에도, 시와

함께 했다"고 말하며 "네 번째 출간된 '커 가는 사랑'은 때로는 이웃에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아픈 이웃을 달래려고, 때로는 자신의 아픔을 달래려고 시를 썼다. 이 시집을 읽는 독자들에게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낙비 같은 추억과 낭만 선사하러"

희망과 기쁨을 누리며 사막 같은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한줄기 소낙비

같은 추억과 낭만을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서문에 수록했다.

본 시집은 1부 '그대는 나의 시가 됩니다', 2부 '가슴으로 사는 인생', 3부 '어머니의 기도', 4부 '아픈 날의 기도' 로 나뉘어 총 90여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시들은 각 시귀마다 연인을 떠올리게도 하고, 주님

절절이 스며있기도 하다.

틈틈한/뉘장국 끓여놓고/문득/떠오른 아들생각에/목맨 어머니/말없이/손가락 놓으실 때/아들은/갈빗집에서 뜯고 있다/추운 날/연탄불 불이시며/아들 추위/걱정하시며/함솟지 으실 때/아들은/반바지 입고/베란다에서 시원한 공기 쐬고 있다....('어머니와 아들' 중에서)

강태광 시인은 성결대학교, 한세대학교 대학원과 끝내게이

트 침례신학 대학원(Th.M)을 졸업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과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한국에서 군종목사로 20년간 사역 후 도미, 10년간 이민 목회를 해오다 현재는 국제구호 NGO인 World Share를 통해 고통 받는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시집의 판매수익은 아이티쓰레기마을(투찌에) 주민 생활비로 후원된다. 책 구입 문의는 저자에게(323-578-7933)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3면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완결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으로 그의 백성으로 인친 자들에게는 특별한총과 일반은총을 지속적으로 베푸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반은총을 변함없이 베푸시면서 창조주요 구속주이

신 하나님의 존엄과 주권적 통치 및 그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님의 제림 때가 가까울수록 범죄도 더 극성을 부리게 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도 더욱 강해질 것을 주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범죄한 자들과

국가에 인과응보적 이유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성화적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일환으로 개인에게나 사회와 국가에 질병, 기근, 가난, 자연재해, 전쟁 등을 활용해 심판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의 수단이 범죄하고 부패한 인간의 심판의 결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구

원 받은 자에게나 그렇지 못한 자에게 아직도 지속되는 이상 그것이 한 개인이나 특정지역이나 공동체, 국가가 반드시 현재의 시공간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만이 아님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젠 어떻게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실행하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이상, 단정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다 아니다로 단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여러 현상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게 될 때 우리 각 개인과 교회

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한편 그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university building and fountain. Text includes: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동부교계 게시판

제 27회 유럽목회자세미나

유럽목회자연구원(대표 한평우 목사)가 주최하는 제 27회 유럽목회자세미나가 4월 20일(월)부터 25일(토)까지 불가리아 소피아(Hotel Bankya Palace)에서 "주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눅10:2)"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김영복 목사(사랑과평화의교회), 이여백 목사(주사랑교회), 이찬용 목사(성만교회), 황영택 목사(강북제일교회), 고광종 목사(인천성산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세미나 참가비는 없고 선교지 답사(4월 23-24일)는 선택 사항이며, 비용은 개인당 약 200유로가 예상된다.

▲이메일: europemi94@gmail.com

반주자 청빙

뉴욕천성장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가 금요찬양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반주할 반주자를 찾고 있다. victorhee4955@gmail.com(이승원 목사), cotlhan@gmail.com(한성욱 목사)

▲문의: (646)808-5118

스마트폰 강좌 시작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91기)가 2월 26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50분까지 80분 강의된다. '10년 써도 모르는 카톡 꿀팁 10가지' 주제로 강의 내용은 카톡 캘린더, 사진 묶어 보내기, 위치 전송하기, 단체카톡 답장하기, 주소보내기, 연락처보내기, 카톡 계산기, 대화/미디어백업하기, 말로 글쓰기, QR코드 열기 등이다. 또한 궁금한 한 가지 질문을 무료로 해결해준다. 삼성 갤럭시폰 또는 LG폰 등 안드로이드 폰 위주로 강의한다. 선착순 10명. 수강료는 무료이고, 등록비 2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뉴수)을 선교 후원한다. 강의 장소는 CBSN사무실(183-22 Booth Memorial Ave 2FL, Fresh Meadows).

▲문의: (718)414-4848

해외기독교 2월 정기모임

해외기독교(회장 이조안 권사) 2월 정기모임이 22일(토) 오전 10시40분 뉴욕새침장로교회(담임 박태구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자는 시 1편 이상 준비해야 한다.

▲문의: (646)932-6881



웨이스 선교회 발족 및 이사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웨이스 선교회 발족 및 윤세웅 이사장 취임예배

웨이스 선교회(Faith Mission Association) 발족 및 이사장 취임예배가 2월 15일 오전 11시 뉴욕뉴기리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렸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표어로 시작된 웨이스 선교회는 세계가정기도운동 및 선교(World Family Prayer Movement & Mission)를 주사역으로 성경연구회와 장학회, 중창단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장 전희수 목사, 사무총장 권캐더린 목사를 주축으로 이사장 윤세웅 목사를 영입해 출발했다.

전희수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웨이스 선교회가 이미 2019년 가정기도운동과 장학회를 하고 있으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사역으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도와 격려를 당부했다.

권캐더린 목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1, 2지역에서 진행된 단기선교를 보고했다.

이날 이사장에 취임한 윤세웅 목사(KCBN사장 및 이사장, 웨이스신학교 전 총장)는 "웨이스 신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웨이스 선교회가 창립됐다"며 "여성목회자들의 성경적인 복음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 선교회는 과테말라(박윤정, 엘살바도르(벤드레리요스, 황은숙), 엘살바도르 엘가르멘(조정연), 콜롬비아(김해정), 파라과이(이명화), 탄자니아(정현), 네팔(세빛들이), 대구어머니기도회(신동순), 캐나다어머니기도회(서은주) 등 7개 지역에서 사역하며 장학금은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탄자니아, 파라과이, 과테말라에 10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1부 예배는 한기술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백성운 집사, 특송 케리그마 남성중창단, 설교 김홍석 목사, 헌금특주 뉴욕오카리나선교단&글로벌뉴욕여성중창단, 헌금기도 김교섭 목사, 축도 라홍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홍석 목사는 "최초의 선교사 요셉"(창37:1-11)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선교적 안목에서 요셉을 봐야 한다. 요셉이 꿈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며 선교사의 삶이다. 요셉이 받았던 선교의 비전을 우리도 받아 선교적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2부 취임식은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안경순 목사 기도 후 축가 뉴욕장로아이노스중창단, 인사말 전희수 목사, 취임사 윤세웅 목사, 사역보고 및 안내 권캐더린 목사, 축사영성, 축사 방지각 목사, 한재홍 목사, 이준성 목사, 축시 이조안 시인("하나의 열매"), 폐회 및 오찬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준회원제 도입, 지방회 활동 배려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임시총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2월 월례회가 2월 11일 오전 10시 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경건회를 마치고 회무 후 임시총회가 열려 '회원의 자격'에 대한 수정안을 다뤘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수정안은 임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본회는 본 교단 기관에서 종사하는 기관 목사와 본 회 회원교회에서 은퇴한 목사 및 침례교 목사로서 본회의 규약에 찬동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로 돼 있다.

"침례교 목사로서 본회의 규약에 찬동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는 자"라는 내용과 "준회원"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목회를 하다 (잠시) 중단한 목회자들, 회원교회의 선교나 교육 목사, 타교단에서 활동하는 침례교 목사들도 준회원으로 지방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안이다. 단 준회원들은 투표권이 없다.

지방회장 박준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회무에서는 신석환 목사 건강회복과 1월 뉴욕뉴저지 지방회연합 신년 기도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2020년 주요 행사로 △6월 8일 올랜도에서 열리는 한인총회 △6월 28일-7월 1일 청소년연합수련회 △8월 10일-12일 목회자 가족수련회가 예정돼 있다고 보고했다.

소식나눔을 통해 박진하 목사는 2월 24-26일 총회 실행위원회 모임에 참석한다며, 지방회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동기가 있으면 총회장 출마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래너드 목사는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러시아 침례교회 모임에 초청을 받았으며 기도를 부탁했다.

1부 경건회는 인도 김재용 목사, 기도 박현준 목사, 설교 박준수 목사, 광고 총무 신은철 목사, 봉헌기도 및 축도 최창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준수 목사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후12:1-1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다. 오늘날 놀라운 과학의 발달을 견고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인간의 약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함을 통해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라며 본문에 바울의 가시를 소개하며 "왜 하나님께서 일꾼인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죄성은 은혜가 아무리 들어가도,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최대의 적은 내부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와 한국에서의 첫 목회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약함과 가시가 있다.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강함과 능력을 경험하고, 능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제4회 뉴욕 이보교 심포지엄

뉴욕 이민자보호교회(이보교)가 주최하는 "제4회 뉴욕 이보교 심포지엄"이 4월 30일(목) 오후 5시 뉴욕그레이트교회(양민석 목사)에서 "앞으로 이민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포괄적 이민법안과 드림액트 법안을 다루게 될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국의 잠재적 이보교 가족들을 초청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718)565-6555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제 5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3월 16일(월)-18일(수), 주예수교회에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소재 유니온신학교 국제선교센터와 주예수교회 사회선교연구원 공동주최하는 '제 5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3월 16일(월)부터 3월 18일(수)까지 개최된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목회현장의 경험과 함께 나누는 세미나로,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세미나는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 담임, '선교적교회목회

론',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의 저자)의 강연과 김동영 목사(컬럼비아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의 사례발표가 있게 되며, 그 외에도 토론과 나눔, 총장 초청찬양이 있을 예정이다.

교회현재 자체가 선교로서 존재하는(Being Mission)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으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온 배현찬 목사의 강의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필요성, 선교적 교회의 과제들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김동영 목사의 사례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역의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20명이며, 등록비는 교재 및 숙식 포함 100달러다. 등록 및 문의는 우편 혹은 이메일로 가능하다.

△우편등록: Dr. James Taneti(804-278-4350, Director, Global Mission Center, Union Presbyterian Seminary, 3401 Brook Rd, Richmond, VA, 23227) △이메일 등록: james.taneti@upsem.edu

▲문의: (804)560-7500, 7509(주예수교회) (기사제공: 주예수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c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라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pc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선교연합: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회 오후 3:20분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m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평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파넬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



LA사랑의교회 김지연 약사 초청 세미나에서 김지연 약사가 강의하고 있다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도록 교육해야”

LA사랑의교회, 김지연 약사 초청 세미나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김지연 약사(한국가족보 건협회 대표) 초청 세미나가 16일 오후 1시 레오폴리티 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김지연 대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는 우리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자녀양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양육을 위해서 자녀와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교육정책이 반기독교적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자녀와 소통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성경구절을 자녀들에게 많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암송구절을 집안 눈길에 많이 가는 곳에 붙여서 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매일 10초간 부모자신의 이야기를 자녀에게 나누는 것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이 많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1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역사를 영웅시하

는 내용을 역사와 사회과목에 포함시키는 SB48, 탈동성애를 막는 SB1172 등 수많은 친동성애 성향의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러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주는 교육이 계속된다면 청소년들의 트랜스젠더리즘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유럽과 캐나다도 차별금지법 통과 등으로 친동성애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가 나서 친동성애적 법안통과를 막고 있다. 기독교역사가 100여년인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우리보다 기독교역사가 훨씬 많은 유럽교회에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차세대를 지키려면 소통해야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 없이 방법 없다. 아이들 죄와 싸워 이길 때 성화되어지며 예수를 위해 순교당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 마지막 때에 방주는 교회다. 동성애 옹호정책을 바로잡을 선한일꾼들이 많이 나와 교육계와 정치계에 진출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초대교회사 다시읽기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최종원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초대교회사 다시 생각하기” 주제

강사 최종원 교수 2강은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초대교회사 다시읽기 세미나가 17일과 18일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최정수 목사)에서 열렸다. 최종원 교수(캐나다 밴쿠버 VIEW교수)가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첫날 강의는 ‘초대교회 다시 생각하기’란 주제로 열렸다.

최종원 교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고체계 내에서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며 “하지만 하나님중심주의라는 신본주의의 반대말이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라는 휴머니즘으로 대비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휴머니즘의 반대말은 스피라티즘이며 인간중심주의라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신본주의의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고이즘 즉 자기애이며 인본주의가 잘 구현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신본주의다. 종교개혁은 바로 인문주의가 발달하지 못했다면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최 교수는 “초대교회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 가졌던 유대교의 가치와 로마인들이 가졌

던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적 우월주의를 이겨낸 것이고 그로 인해 기독교가 세계종교가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교회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인종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유대인들은 혈통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룹으로 나누는 혈통적 인종주의를 교회가 넘어섰을 때 기독교는 확산되고 성장될 수 있었다”며 “종교개혁 역시 사제주의 교권주의를 넘어섰기에 가능했다”며 “루터와 루터 이후 사람들이 벽을 허물고 사제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신분적 인종주의를 넘어서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교회의 역사는 1세기부터 16세기의 이상적 세계로 돌아가자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목 말라하는 것을 알고 대처하고 같이 호흡하는 역사”라고 설명했다.

18일에는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라는 주제로 최종원 교수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세상 한 가운데서 예배드리다”

9회 심형진 목사 워십투게더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데스티네이션 “The Source”에서 15일 오후 5시 ‘워십투게더’ 시리즈의 아홉 번째 특별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시작 전부터 콘서트장에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으며 콘서트가 시작되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는 객석이 가득 차고 워십리더의 찬양인도에 맞춰 참석자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다.

부에나파크 더스에서 시작된 심형진 목사의 워십투게더 콘서트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세상 한 가운데서 예배’를 컨셉으로 시작했으며 이날 아홉 번째 집회를 열었다. 콘서트를 열 때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해 워십투게더 콘서트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적 예배 컨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심형진 목사는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예배사역을 감당했으며, ‘은혜로다’, ‘아름다운 우신’, ‘멈출 수 없네’ 등 수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했으며, 캠퍼스 예배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했다.

이번 콘서트는 한국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대표인도자 염민규 간사)이 섬겼다. 또한 지역의 2세 팀인 ‘Commonground Worship’이 오프닝을 맡고, 스톤게이트뮤직의 워십 팀이 어쿠스틱세션으로 함께 했다.

(박준호 기자)



심형진 목사 워십투게더 콘서트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다



G2G선교회 대표 주최 행복만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 세미나가 맥알렌서립도서관에서 열렸다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

G2G선교회 이훈구 장로, BHFF 세미나

G2G선교회(대표 이훈구 장로) 주관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 세미나가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맥알렌에 위치한 맥알렌 시립도서관에서 15일 오후 2시 열었다.

지역 한글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훈구 장로는 “자녀 교육 진로 결혼은 궁극적으로는 한인 동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들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훈구 장로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가정 만들기 운동(Building a Happy Family of Faith)을 전개하는데 BHFF는 △미주한인 믿음의 청년들이 서로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 △민지 않는 한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 받게 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한국에서 온 유학생 또는 믿으려 하는

초신자들에게 거주지역의 아름다운 교회 소개해주는 역할” 등이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복한 믿음의 자녀 가정 만들기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으로 한글학교 교사와 한인자녀들의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훈구 장로는 휴스턴 남부 개혁대학 및 신대원에서 목회학석사와 선교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G2G선교회를 2013년에 설립하고 2015년 8월에는 미국비영리재단으로 등록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를 찾아 선교지원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와 연결해주는 링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월드비전 어린이 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행복한 믿음의 자녀가정 만들기 BHFF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G2G선교회)

“행복바이러스 전파하겠다” 2월 15-22일

소망소사이어티, 제5차 차드비전트립 파송예배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비전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에서는 웰빙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차드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제5차 차드비전트립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이를 위한 파송예배를 2월 10일 오전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열었다.

파송예배는 김도민 목사(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가 ‘나눔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김창곤 목사(포도원 교회)가 기도, 2018년 4차 차드비

전트립에 참여했던 오드린 이가 대학생으로 처음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나눴다.

이어서 이번 트립에 단장으로 책임을 맡은 황치훈 단장이 비전트립 브리핑과 함께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인사말과 함께 초기에 소망우물이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커다란 역할을 한 미주중앙일보의 정구현 선임기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비전트립에 참여할 황치훈 단장을 비롯한 3명의 참여자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서부교회 게시판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 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김형준 목사(서울동안교회 담임)를 강사로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다시 쓰는 인생행진’이란 주제로 열린다. 김형준 목사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다시 쓰는 신앙기준’(살전 5:16-18), 토요일 새벽 6시 ‘다시 쓰는 영적기준’(마16:13-20), 토요일 저녁 7시 ‘다시 쓰는 행복기준’(요15:9-12), 주일 1, 2, 3부 예배 ‘괜찮아 다시 시작해’(요21:15-17)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한다.

▲문의: (562)677-7777

순복음 북미총회 LA지방회 총회

순복음 북미총회 LA지방회 총회가 25일(화)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EM예배실에서 열린다.

▲문의: (323)913-4499

무료 세금보고 강좌

유학생, 신학생, 목회자를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강좌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 LA 확장 강의실(3020 Wilshire Blvd.#175)에서 2월 29일(토) 오후 12시30분 - 2시 개최한다. 강사 제임스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비영리단체 및 비즈니스 선교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본 강의에서는 ‘개인세무보고란?’, ‘세무보고를 위한 조건’, ‘세금보고와 소셜번호’, ‘고용과 소득에 관한 이해’를 비롯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714)393-4595(Center), (213)529-4147(LA Extension)

글로벌싱글스커뮤니티 만남의 장

글로벌싱글스커뮤니티(회장 이병만 장로)에서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주고 귀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만남의 장을 준비한다. 3월 28일(토), 29일(주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리며 참가비 100달러. 참가신청서는 교회주보, 담임목사나 담당사역자 또는 지역단체장이나 회사대표의 추천서이며 glorysingles@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나이에 제한이 없고 모든 싱글남녀는 참가할 수 있다.

▲문의: (678)538-7777(회장 이병만 장로), (213)700-6541(디렉터 레슬리조 권사)

‘박인수와 친구들’ 새봄 음악회

한국최고의 팝가수 박인수 교수와 친구들이 새봄음악회를 23일(주일) 오후 4시 나성소망교회(255 S. Hills St. #401 Conference room)에서 개최한다. 이날 출연자는 테너 박인수, 오영위, 소프라노 카일라김, 조이김, 반주는 김주영이 맡는다.

▲문의: (310)503-3476(구영미 전도사)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교육 실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실시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종교지도자(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생)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무료 진행되며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문의: mlee@kfamla.org

나성영락교회 봄맞이 말씀집회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봄맞이 말씀집회가 3월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장경철 목사(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축복을 유통하는 삶’(엡3:1)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문의: (323)227-1400

로 염려를 많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드를 중심으로 소망 우물 파기, 소망 유치원 건립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현재까지 총 412개의 우물후원금을 접수해 깨끗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아프리카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소망우물을 파쳤으며 작년에 건립한 소망학교를 비롯 총 5개의 유치원을 건립해 차드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팀은 그동안 건립된 우물과 학교들을 돌아보고 400여 기금 우물 시추도 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소망 소사이어티, 제 5차 차드비전트립 파송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전광훈 목사 발언, 우려스럽다”

기독교 8개교단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협의회 성명

기독교의 8개교단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협의회(협의회·회장 안용식)가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국 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전광훈 목사가 애국 운동을 빌미로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우려를 금

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 목사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앞 ‘광야교회’ 저녁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한 발언과 해당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해당 발언은 반성 경직적이고,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전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백석·고신·합신을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 기독교 대한침례회 소속 이단 대책 위원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의 한기총과 무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한기총과 선긋기 나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선긋기에 나섰다.

기공협은 14일 “기공협은 2012년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소속 교단, 여러 교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단체”라면서 “설립 당시만 해도 한기총이 교계 연합기관으로 이단 시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

기에 함께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5월 28일부터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력사역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공협의 김철영 사무총장(목사)은 “기공협은 그동안 한교총을 비롯한 소속 교단 그리고 교계 단체들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전체 뜻을 모아 여야 정당과 정부에 공공정책

을 제안하고 추진해왔다”면서 “전광훈 대표회장 취임 후 한기총이 극우 정치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일부에서 한기총의 기공협 참여에 대한 문의가 있어 공식 견해를 밝히게 됐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그동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의 막말과 극우성향의 정치 발언을 이어가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다. 다만 전 목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 직인 도용직원들 해임

전명구 감독회장 소송취하동에서 윤보환 직무대행 결재 없이 제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사용한 박모 행정기획실장과 지모 사무국 총무를 해임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기획실장과 사무국 총무는 기감 본부의 사무 책임을 맡는 주요 보직이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정지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 취하를 위한 서류에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찍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사건은 감리회나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의 직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므로 소취하 관련 동서 제출 등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면서 “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지시와 결재 없이 중요한 소송 문서를 작

성해 제출해서는 안 되는 만큼 박 실장과 지 총무의 행동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지난해 12월 감독회장 소송 취하 시도는 전 감독회장이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고 복귀하려던 길을 오히려 막아 버렸다. 전 감독회장은 당초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취하되면 감독회장에 복귀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 취하서’가 아닌 ‘상고 취하서’가 잘못 제출돼 이를 철회했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중독예방기독교연합 출범

각 정당대상 중독예방공약캠페인...전국교회서 서명운동

우리사회의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예방기독교연합’(중기연)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중독의 문제”라며 “도

박, 알콜, 마약, 흡연, 게임, 성중독 등 각종 중독들이 우리 가정들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중독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을 파괴하는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중독과 싸워

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연은 4·15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각 정당이 중독예방법 제정을 공약으로 넣도록 하는 중독예방공약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교회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각 지역교회들이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삼도록 하는 촉구하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는 회원, 무료 심리상담 권유에 반응하는 회원에게 일대일로 채팅을 시작해 본격적으로 ‘추수’에 나서는 전략을 쓴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중국 내 신천지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다롄시의 신천지교회를 해산시켰다. 신천지로 인해 직해자가 늘자 신천지를 사교 및 불법 사회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A씨는 “신천지가 온라인으로 교리를 전파한 뒤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 오프라인 모임으로 세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적 위축으로 이단 교리에 대한 분별이 어려운 중국인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체채팅방에선 신도들끼리 “당신은 신앙인인가/ 가족신앙이다” ‘신곡을 부를 수 있는가/ 신곡을 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하나/ 푸른색’ 등의 ‘질문/답호’를 주고받으면서 신분을 확인한다”며 “채팅방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순절 코앞인데... ‘코로나19’ 에 고민 깊은 교회들

사순절 계기로 목회일정 정상화 고대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목회일정에 따른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교회들이 행사 재개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적지 않은 교회가 사순절부터는 사역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이 또한 미지수다. 올해 사순절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 A교회 목사는 17일 “사순절을 앞둔 이 시기는 보통 특별새벽기도회를 준비하거나 학생들의 새 학기 프로그램을 계획하느라 바쁘게 정상”이라며 “3월부터는 구역 모임도 시작돼 교인들의 만남도 빈번해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떤 계획도 세우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산이 잦아들어 다음 달 중순에라도 목회일정을 재개하고 싶다”면서 “이때도 놓치면 1년 목회 계획이 모두 흐트러질까 염려된다”고 했다.

교회식당 운영을 3주째 중단한 서울 종로구 B교회 담임 목사는 “예배 후 교인들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던 식당을 폐쇄하자 교인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23일에 식당을 열까 했지만, 장로님들의 우려가 커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긴장을 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국내 29번 확진자가 나온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교회도 최상의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예배 중에도 노약자등이나 폐와 심장이 좋지 않은 고위험군 교인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중 하나로 가급적 외부행사를 자제토록 당부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라는 주문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특히 2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밝혀질 때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성남의 C교회 담임 목사는 “16일 주일예배 때 마스크를 한 교인들이 지난 주일에 비해 확연히 줄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드려도 된다는 안내를 일부러 했다”면서 “안전불감증으로 병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 광고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한 행사도 재개할 계획이 당분간 없다”면서 “무리하면 자칫 교회가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만희는 구원자 아니다”

신천지 교주 내연녀 감람씨씨 개인방송 통해 밝혀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사후를 준비했다. 이 교주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고자 양심선언하려 한다.”

사이비종교집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가 지난 11일 동영상 재생 사이트 유튜브의 한 개인방송을 통해 이같이 폭로했다. 교주 이씨를 영생불사의 보혜사로 떠받드는 신천지의 허상을 고발한 것이다. 김씨는 신천지의 위장단체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를 역

임했다.

김씨는 이날 ‘성경보다 이만희를 믿어야 한다’ ‘이만희는 성경 말씀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전 신천지 총회교육부장 A씨의 교육내용을 소개했다. 김씨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고 전했다. 김씨는 “그동안 유엔이나 해외의 각국 국영방송을 통해 이만희를 하나님이라 보내준 구원자라 선포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대적자의 일을 했다”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변

던 지난 제 과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사기 집단이다. 이만희는 한낱 평범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앞으로 이만희가 직접 쓴 편지와 영상 등 실제적인 증거를 통해 그의 허구성을 있는 그대로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단사역 전문가들은 김씨의 폭로가 후계 문제를 둘러싼 신천지의 내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신천지 신도들은 교주 이씨가 영생불사한다고 믿지만, 이씨는 올해 우리나라 아흔으로 노쇠화가 두드러져 후계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제 33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29일 오전 서울 삼성제일교회서...설교 이정익 목사

제33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제일교회(이윤성원 목사) 대예배당에서 열린다.

주제는 ‘민족을 가슴에 품고 화합하게 하소서’이다.

이정익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한다.

이목사는 1991년 신촌성결교회 4대 목사로 부임해 25년

간 목회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서울신학대 이사장, CBS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가 세미나를 인도한다.

팜 소프라노 하은이 특별찬양을, 김수영 시인이 축시를 낭독한다.

이날 기도회는 민족화합기도

회(대표회장 정근모 장로)와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대표회장 손영철 권사), 국제기증본부, 삼성제일교회, 총무교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또 국가차관기도회, 국가기도운동본부, 한국전력그룹선교회, Ruk운동협의회, C-lamp, Korea Cedar, 한국기독실업인회 등이 주최한다.

민족화합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 최태섭 김인득 이한빈 서영훈 장로와 정근모 장로에 의해 1988년 3월 1일 첫 기도회를 갖고 출범했다.

정근모, 케냐에 카이스트대 설립 경과보고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시더·올타리 포럼서

시더·올타리 포럼(고문 정근모 전 과거부장관·회장 성병욱 전 중앙일보 주필·총무 손재경 전 PD)은 1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7회 기도모임’을 갖는다.

강사는 정근모(사진)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이다. 정 총장은 케냐에 카이스트

대학 설립 제안을 받고 그동안 진전된 상황을 보고한다.

강의 제목은 ‘케냐선교가 부른다 - 카이스트 대학 설립의 경과보고’이다.

또 지난해 KBS 성탄특집 다큐 ‘갈레성자 순경도 목사’를 올해 재편집, 개봉관 상영을 준비 중인 권혁만 KBS 감독의 제작 후기와 향후 영상제작의 비

전을 듣는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회개와 성장’ ‘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기도한다.

손재경 시더·올타리포럼 지도목사는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더·올타리포럼은 기독교를 보호하고 복음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한 기독교지도자 기도모임이다.

한반도 둘러싼 국제정세, 중국몽 어떻게...

코리아네이버스, ‘2020년 동북아평화질서구축 모색’ 콜로키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녹록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뿐 아니라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국의 4·15 총선 질문/답호를 주고받으면서 신분을 확인한다”며 “채팅방에서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할까.

NGO 코리아네이버스(KHN·이사장 이정익 목사)와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화상관에서 ‘2020년 동북아시아 평화질서구축 모색: 진단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이정익 목사는 “올바른 외

교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국제 정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0년 동북아 평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1세기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이 실패하면서 미국의 힘이 이전보다 약해진 상황에서 동북아와 한반도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불거진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4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사투(死鬪)의 현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2019-nCoV)로 인해 전 세계가 패닉 상태다. 그 발원지인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는 매일 사람이 100여 명씩 죽어 나가고 있다. 중국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2월 18일 0시를 기해 사망자는 1,868명이며 누적 확진 자는 72,436명이라고 발표했다. 공식 통계가 이리 할진데 누락된 사람들까지 합산하면 얼마나 될까?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다.

이 전염병은 과연 언제나 진정될 수 있을까?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당장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저 많은 환자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안타까운 현실이다. 열악한 환경에 투입된 소수의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저들은 존엄을 아끼기 위해 기저귀를 차고 있다. 한 지구촌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사의 기점에서 바이러스 균과 싸움하고 있는가 하면 바다 건너 여타 지역에서는 그저 자기 몸보신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잠으로 비상사이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의 때에 세계의 교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중국의 일반적 상황

영화에서나 보았던 유럽도사가 나타났다.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시를 두고 한 말이다. 그 많은 사람들과 차량행렬은 볼 수가 없다. 고층빌딩 사이의 거리는 적막하기 그지없다. 학교와 교회 등도 문을 닫았

다. 모든 것이 차단되고 사람들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 행여 생필품을 사러 나간다고 해도 마스크를 쓴 채로 완전무장을 해야 한다. 중국은 3월 초 열 예정이었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양회 연기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북경의 고색장연한 자금성도 40년 만에 닫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어떠한가? 불안해 떨고 있다. 만일 코로나 바이

러스 양성환자로 판명되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된다. 병원을 찾아 입원 중에 죽어가는 자,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대기 중에 죽어가는 자, 아예 병원이 두려워 엉거주춤 기포하다 죽어가는 자 등 천태만상이다. 우한의 화장터는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다. 역병으로 사망한 시신들은 천으로 돌돌 말린 채 고독한 황천길을 떠나야 한다. 가족들은 부모형제 자식이 죽어가고 장례식을 치를 수 없다. 그저 통보만 받을 뿐이다. 그 통행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2. 한 가족의 이야기

비극의 주인공은 후베이 영화제작소 상인상(像音像)의 간부인 장카이(常凱·55) 가족이다. 1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부모와 함께 살았다. 지난 춘제(春節, 중국의 설) 연휴인 1월 24일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이튿날 장카이의

아버지는 기침과 호흡곤란 등 신종코로나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상이 없어 입원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사흘 뒤 세상을 떠났다. 신종코로나는 아버지를 간호하던 가족에게 옮겨갔다. 다섯 뒤인 지난 2월 2일에는 장카이의 어머니가 사망했다. 지난 2월 14일 오전 장카이 역시 병원에서 신종코로나로 숨졌다. 같은 날 오후 그의 누나도 세상을 떠났다. 17일 만에 일가 4명이 신종코로나로 연달아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의 아내 역시 신종코로나

에 감염돼 중환자실에 있다. 장카이는 죽기 전 남긴 유서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애걸했지만 날아가고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받는다고 했다”고 탄탄했다. 이런 환자가 어디 한두 명이랴. 문명이 발달한 21세기에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3. 생명을 건 헌신자

1월 27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우한대학교 소속 인민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산시아(30)는 최근 긴 생머리를 과감하게 자르고 삭발머리로 변신했다. 이 간호사는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녀야 하는 자신의 직업특성상 긴 머리카락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또한 머리에 신경 쓰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내 시간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며 “보호복을 입고 벗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

서이다. 수만 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치료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 얼마나 고독하며 불안할까? 성령께서 도움 자를 붙이 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들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한다. 둘째는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서이다. 저들은 대부분은 집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고난의 때에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중국 특유의 가정교회가 활성화되며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란다. 셋째 의료인 과 행정요원들을 위해서이다. 저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성령께서 의료인 모두를 강건케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한다. 넷째는 의료 학자나 전문가들을 위해서이다. 저들을 통해 속히 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섯째는 14억 중국을 위해서이다. 이번 고난을 잘 극복하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잘 되

의 때 교회가 그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 그들이 도움을 청한 이 때 안 가고 도대체 언제 가겠다는 것인가? 물론 위험하다. 그러나 이때를 피하고 사태가 안정된 때 가겠다는 이는 기만이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겠다는 것인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타이밍을 놓쳐 버리면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은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며 선행을 가장한 유류이다. 재난의 때에 교회가 만사를 재기하고 용수철처럼 될 수 있는 911같은 인명구조대를 속히 보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계교회를 내려다 보고 계신다.

맺음 말

2020 경자년 초기에 중국을 비롯 전 지구촌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1억 이상의 중국교회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누구나 예민해지고 자기만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민심은 흉흉해지고 검증되지 않는 소문들이 떠돌게 된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행을 절제하며 사랑의 빛을 발해야 한다. 특히나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

선부른 판단이나 정죄는 금물이다. 그것은 환부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며 미래선교의 문을 닫히게 한다. 사람이 때로 죽어 나가는 마당에 굳이 이념이나 체제를 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정치지도자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세계교회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무조건 보듬어야 한다. 십자가의 정신은 모든 인종과 종파와 체제와 사상을 뛰어 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감당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여오와라 파!

jsong007@hanmail.net

폐렴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정죄함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된다.

세계교회가 저들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선교의 문은 닫히고 말 것이다.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95년생 간호사의 편지'를 통해 "가족들이 돌아와서 명절을 같이 보내자고 했지만 나는 병원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만약 내가 잘못되었다면 바이러스 극복연구를 위해 시신을 기증하겠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썼다. 전생태에 나가는 군인처럼 그 결연함이 느껴진다.

4. 중국을 위한 기도제목

우리는 첫째 환우들을 위해

야 한다. 지구촌은 하나이고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이다.

5. 의료 특공대 파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세계 기독교회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간 일어났던 국제적 재난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이다. 같이 동조하는 아픔이 없다. 해외에서 들어가는 구호대도 없다. 세계교회는 속히 단기 의료사역 팀을 왜 급파해야 한다. 세상이 뒤집히고 인명이 경각에 달린 절대 절명



세계한인언론협회 주관 제5회 신앙서적 독후감 공모 수상작

'나를 돌보는 시간' (김유비/규장)을 읽고

우수상 김화성(영국 에이처치)



불과 지난주는 휴먼지를 머금은 바람을 맞으며 요르단의 작열하는 와디럼 사막을 달렸는데 이곳 런던에서는 생동감에도 잔뜩 찌푸린 비구를 추적하는 사무실에서 쌓여있는 메일을 쳐내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잠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무지개 그라데이션의 양 끝을 가로지르듯이 묘한 색깔의 대비를 이루는 유난한 10월 가을을 일필휘지처럼 지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목숨과 가족을 드러 완강한 이슬람 국가에서 시리아 난민과 무슬림을 위해 위협을 감내하는 선교사님들은 웬만한 일에는 상처입지 않는 철인들로 여겼고 그러한 생채기는 나같이 비교적 안전지대에 머물며 교회 생활을 하는 '약골들'을 위한 부산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종종 현장에서 산산이 부서질 무렵, 김유비 목사님이 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책을 만나 그 연유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옆에서 속삭이듯이 조분조분 이야기하는 어투가 그대로 활자로 녹아들어서 다소 건조할 수 있는 '치유'라는 화두가 마치 따뜻하고 정겨운 차 한 잔을 마주하고 만난 선배처럼 서늘하지 않고 평안한 위로의

여정을 정겹게 따르게 하였다.

저자이신 김유비 목사님은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신화'와 '영향력'에 매몰되지 않고 재능과 자격으로 쓴 자량이 아닌, 저자 자신처럼 상처입은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섬기는 것에 의미를 발견하면서 오롯이 주님의 관심을 말씀으로 붙들고 안정적 사역공간을 마다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간을 보지 않고" 무작정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뾰족한 대책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다소 무모한 목사님이란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책을 열면서 엄청 고된 많고 겁 많은 '소심남(小心男)'이어서, 마치 핑계 많던 모세와 임대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와 위대함에 발견하게 되었다.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기독교 안에서 드라마틱한 미담과 축복의 증명이 북새통을 이루는 요즘, 그렇게 위대한 간증들처럼 살아지지 않아 의기소침하며 어두운 무대 뒤로 몸을 숨기는 그런 '가나안성도'들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누가 꿈에서 보았다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낡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읽는 나로 하여금 복음과 말씀을 추월하

려고 했던 알팍한 조급함과 열패감을 내려놓고 '약해도 괜찮은 나', '약해도 평안한 나'가 되어 믿음의 여정을 평생 신실하게 걷기를 다독이고 있었다.

책의 대화 중 절 반 이상이 가족에 관한 눈물과 위로로 채워진 것은 이 시대가 치열하게 생존하고 자신을 방어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시간조차 낼 수 없었던 빼어난 우리 시대와 교회의 자화상이면서, 동시에 김유비 목사님 자신이 아픈 손가락 같은 가족과 함께 지내온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여정이 결코 우연히 아니라 작은 소자인 우리가 주님의 '큰 그림' 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리라.

우리가 직면하는 아픈 가족들은 나쁜 부모나 자녀, 이상한 배우자여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 많은 거절들로 인해 자신의 표현방식을 포기하기에 이르러 대개 "대화를 피하려고 참는 것"을 '회생'과 '인내'로 대체하고 합리화하게 되는데 실상은 못된 사람이 아니라 서툰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딘 사람으로 '타인이 얼마나 힘든지'와 심지어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에 무덤덤하게 되지만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이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주권자의 보좌에서 내려

와 예수님과 하나되어 올바른 방식으로 가족과 마주 하게 하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음을 일깨워주었다.

'아빠의 무관심'은 남편 짐작이 되고, '아빠의 외도'는 남편 감시가 되며, '아빠의 학대'는 남편 무시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은 자라는 환경은 자신의 선택과 원함이 아닌 그저 주어졌듯이 변화시킬 수 없는 기억과 고칠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의미를 통해, 그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 분명히 함께해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셨고 나를 위해 모든 의미와 뜻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나와 같이 아픈 또 한 영혼을 치유하는 'a Wounded healer'가 되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분인 까닭이다(시 138:16).

모든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 돌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자의적 겸손과 미덕(?)은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불행은 '나 때문'이라는 기승전 자아비판과 비하를 통해 "자녀에게 자신의 상처가 전해지지 않을까?"하는 강박과 죄책감의 짐을 지게 하지만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자녀를 예수님께 위탁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러보내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된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지만 자신이 여전히 외로울 수 있는 것은 하

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임에도,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이상적인 신화와 높은 이상을 신봉하며 살아서 당연히 모범적인 신앙으로 규정된 가시적인 성과와 칭찬에 목매며, 짐짓 '씩 관찮은 평판'과 '믿음의 슈퍼히어로'가 될 것을 은연중에 스스로 채근하고 증명하려하지만 가족과 부부, 관계와 사역에 남아 있는 여전히 '외로움'에 당황해 하곤 한다. 군중과 관계, 심지어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도 외로운 이유는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더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님을 더 만나야 하고 '내가 나와 대화해야 하는 시간'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야 했다.

'자신을 잘 돌봐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가지면서 적어도 내 배우자가 내 옆에서는 외롭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한다는 음성을 읽고 듣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상처가 힘든 이유는 거대한 성(城), 거짓의 방에 갇혀서 왜곡을 경험하기 때문인데 그 아픔의 닫힌 방으로 돌아가서 거짓 핏말을 부수고 문을 열어 빛을 비추는 과정을 통해 자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프로세스는 가장 기본적이고 순전한 인 과정을 설명한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생존의 문제로 골몰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방어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방어기제가 자신의 진실에 눈멀게 하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등지게 하며 새로운 용

량인 대체물을 마련하게 하는 거들된 악수(惡手)를(렘 2:13) 두게 하였다. 마침내 숨겨진 애착과 부끄러운 기대가 침해당할 때마다 석연치 않은 분노를 사명 혹은 정의로 포장하며 생존을 확보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뺨속까지 죄인'인 가면 뒤의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젠 내 마음의 커튼 위에 숨어있어 가끔 수줍게 고개 내미는 한 아이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고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생명을 주셨으니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숨어서 조정해거나 유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어야 할 시간임을 느낀다.

그 아이는 들리면 수치스러워하고 화를 내며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며 무언가에 꽃힐 때는 정신을 잃고 탐닉하는 아이이니 잘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예수님을 소개해주려한다. 때로는 그 아이는 기발해서 하나님마저 생존의 도구로 이용하고 신앙을 놀이터로 사용하기도 하며 상담 받을 때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서 존재를 숨기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게다. 숨어서 욕구를 유도하여 성취하려는 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겠다. 너무 신령해도 아플 수 있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도 상처 입을 수 있으니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며' 가야 하리라.

(14면으로 계속)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가정의 어원

가정의 어원을 2가지 면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구성원, 즉 아버지(남편), 어머니(아내), 자녀, 그리고 넓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한 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가정(Family)과, 둘째는 건물, 집(House)을 중심으로 한 가정(Home)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할 때는 한문으로 '家庭', 즉 '집(家)'과 '뜰(庭)', 집과 뜰이 있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건물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건물 을 말할 때는 영어로 'House'도 있기에, 'Home'과 'House'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Home Sweet Home', 우리나라에서도 '즐거움 나의 집'으로 번안되어 잘 알려진 명곡입니다. 1823년에 작사한 이 노래는 남북전쟁 때 남군, 북군 할 것 없이 널리 불렸으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부인이 특히 좋아한 것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3. 참된 가정(Real Sweet Home)

하나님이 직접 손수 최초로 가정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Home'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건물, 그 자체일 뿐이고, 'Home'은 안식과 쉼, 위로와 평안, 기쁨과 감사가 있고, 화목하고 행복한 향기 나는 가정을 말할 때, 'Home(가정)'으로 쓰여진다고 이해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1. Family(가정의 구성원)

가정을 가리키는 영어의 '패

진정한 가족은 늘 제자리 지키며 가까이에서 도와 하나님은 축복 받는 참된 믿음의 가정 이루길 바라

밀리(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아빠 엄마 사랑해요.)'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혹자는 말하지만, 이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라도 가정을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표현일 뿐입니다.

사실 패밀리(Family)는 라틴어 파밀리아(Familia)에서 왔는데, 파밀리아(Familia)는 흥미롭게도 '시중', '하인'이란 뜻의 '파물루스'(famulus)에서 유래합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왕이고 싶고, 일터에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내 집만큼은 편안한 궁중이었으면 싶은 텐데, 참으로 뜬금없는 어원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시종과 하인은 항상 옆에서 수행하며 일거리를 돕습니다. 진정한 가족 또한 늘 제자리를 지키며 가까이에서 돕습니다.

2. House(집)와 Home(가정)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Home Sweet Home'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852년 4월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이 지난 뒤 1883년 3월 22일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운구했습니다.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많은 시민들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군악대의 장엄한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정치가나 장군도, 위대한 과학자나 경영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극작가이며 배우였던 존 하워드 페인(John Howard Payne, 1771-1852)이었습니다.

무엇이 미국인들의 가슴을 그토록 울렸을까?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였습니다.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의 가정들이 축복 받는 참된 믿음의 가정(Real Sweet Home)을 이루길 바라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본 액자의 참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원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주소서. 주님이 호주가 되고, 성령이 가운되어, 아내는 말씀 보고, 엄마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에 지상낙원 꽃피우게 하소서."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비즈니스 탐방



중앙장 의사 하봉호 공인장례사

장례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가족들의 '화합'

하봉호 공인장례사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왔다.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도와주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그는 석사학위 이후 처음 뉴욕 플라싱에 위치한 여성 노숙자 보호소에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마음을 다친 여성 노숙자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를 하다 그곳에서 사마한 한 노숙자의 장례식에서 처음 공인장례사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공인장례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 1988년 장례사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공인장례사의 길로 들어섰다.



중앙장 의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하봉호 공인장례사.

필요하며, 그들을 다독이고 중재해 장례가 잘 마무리되도록 돕는 게 장례사가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 장례사가 운영하는 중앙장 의사는 '하늘가족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을 더 많이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 장례사의 최종 목표는 노숙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세우는 일이다.

하 장례사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내 한인들 상대로 하는 노

컴퓨터공학도로 봉사활동 중 공인장례사의 길 걷게 돼 숙원 사업 '노숙자보호시설' 건립...2021년말 청사진 준비

이후 1990년, 한인상권과 중국상권이 교차하는 플라싱 메인스트리트 부근에 중앙장 의사를 최초로 개원해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뉴욕내 한인과 중국 커뮤니티의 올바른 장례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하봉호 장례사는 장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은 가족들의 '화합'이라 생각하고 밝혔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놓고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한다.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화해, 특히 가족들 간의 화해가 장례과정에서 꼭

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하 장례사의 배우자인 황미광 박사가 이사장인 하늘가족재단에서는 추석맞이 성묘, 묘지 꽃심기,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자살방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 고 최귀옥 할머니의 추모 분향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 장례사는 고아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입양아들에게 특히 마음이 쓰인다고 한다. 부모의 축복 속에 자란 아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많이 있다며,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

숙자 쉼터는 4개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섯 곳이다. 사랑의집, 나눔의집, 주님의식탁, 무지개집이 그곳이다. 이 쉼터들에 직접 거주하는 노숙자 그리고 직접 거주하지는 않지만 이들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거리의 노숙자를 포함해 한인은 약 1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 장례사는 자신이 만 70세가 되는 2021년 11월에는 이를 위한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로스킴 객원기자)

'나를 돌보는 시간' (김유배/규정을 읽고 (13면에서 계속)

최근 한 지인에게 들었던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다소 내가 수용하기에는 약간 불편했던 말이 되뇌며 책갈피를 잠시 덮어 가슴에 품고 눈을 감게 된다. 이제 그 웬지 모를 불편함과 가

슴 허한 빈 공간을 채우고야 마침내 내 마음 한편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사역은 가정의 헌신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러기에 가정은 더 충만해져야하고 더 배려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또 한 "그 가정이란 너무도 소중한 공간에서는 바로 내 자신도, 내

마음의 아이도 절대적으로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 글을 끝맺을 무렵,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그치고 가을 하늘이 한 순간 정명해졌다.

복있는 사람은... ..쫓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시1:1). 그 분 안에 더 머물러야겠다.

Large church directory section titled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It lists various churches such as 감사한인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웅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머무는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사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을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Each entry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nd service times.

영어로 보는 성경 (54)

English Bible

이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1 Thessalonians 3:11-13

11) Now may our God and Father himself and our Lord Jesus clear the way for us to come to you, 12)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and overflow for each other and for everyone else, just as ours does for you, 13) May he strengthen your hearts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Father when our Lord Jesus comes with all his holy ones.

(NIV 2011)

WORD & IDIOM

* May S(주어) + V(동사) ~ : 주어가 ~ 하기를 기원하다 * increase: 증가하다, 풍성하다 * overflow: (그릇 등에 가득 담겨) 넘치다, 넘쳐흐르다 * strengthen: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 blameless: 결백한 * in the presence of ~: ~ 앞에서 * his holy ones: 그의 성도들

GRAMMAR

11) **Now** **may** **our God and Father himself and our Lord Jesus**
이제는 (S)가 ~하기를 바라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그분 자신과 우리의 주 예수(가) **clear the way** **for us to come to you.**
길을 깨끗하게 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신과 우리의 주 예수께서 길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 기원문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문장이다. <May + S + V ~> 형식을 가지며 <May> 다음의 주어(S)가 ~하여 주소서, 혹은 주어(S)가 ~ 해 주기를 바라다, 기원하다 등으로 해석한다.

12) **May the Lord make your love** **increase and overflow**
주님이 너희의 사랑을 (~ 하기를 바라다) 풍성하고 넘치다(풍성하여 넘치도록)
for each other and for everyone else, **just as ours does for you.**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랑이 너희에게 한 것처럼 → 우리의 사랑이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우리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주께서 서로(너희 서로)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기를 바란다.
* 이 문장에서 <make>는 사역동사이다. (<~을(를) 하도록 하다, 하도록 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역동사 다음의 목적어 뒤에는 항상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따라서 <your love> 다음에 <to+V>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increase, overflow)이 쓰였다. cf) I want your love to increase.
* <just as ours does for you>에서 <ours>는 소유대명사로서 <우리의 것>이란 의미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사랑>을 말한다. <you>는 수신자가 데살로니가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복수형 <너희>로 해석해야 함을 유의하라.

13) **May he strengthen your hearts**
(so that ~ 이하가 되도록) 그가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바라다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and holy
너희가 결백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되도록)
in the presence of our God and Father
면전(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when our Lord Jesus comes with all his holy ones.
우리 주 예수가 올 때 모든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과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가 결백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분이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 <so that> 이하는 말하는 자(사도 바울)가 왜 주께서 너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문장에서처럼 목적의 내용이 길 경우 <so that ~>을 <그래서, 그리하여> 등의 의미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읽어 나가며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 보라.

STUDY & THOUGHT

■ 본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과 함께 데살로니가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다. 궁극적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사랑할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소망위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며 주께서 강립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소원한다. 실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 Praying may seem inadequate but it is the road to expressing our appreciation to God.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왕상22:41-43)

아주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느냐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왕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웅장스러운 사람인지 다 기록 돼있고 다 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유능하고 훌륭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없고 단 한마디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

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곧고 바른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천성을 향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일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한 가지,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화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왕상22:43-45)

본문은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태후의 위를 폐하고 낙향시켜버릴 정도로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을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보고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 정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나쁜 것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왕이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산당을 폐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버지 아사왕에게 배웠습니다. 그곳이 결국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수 그 배가 예시온계벨에게 파산하였으므로(왕상22:46-50)

본문은 성도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을 깨닫고 180%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왕의 한 가지 큰 실수는 아합왕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44절).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라를 정략적으로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에까지 우상숭배가 침투해 들어오기 시

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징계 하셨습니다. 오빌로 금을 채취하러 가다가 배가 파산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끊었습니다. 여호사밧왕은 북이스라엘과 교류했다가 징계를 당하게 되니까 즉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실수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왕상22:51-53)

여호사밧왕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아하시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왕이 된지 2년 만에 2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과 그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아하시야 왕도 나쁜 왕이지만 다시 한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부모로서 중요한 것은 신앙만은 올바르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손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금 아하시야가 그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왕하1:1-3)

아하시야의 극도의 타락과 전쟁에 나간 아합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점점 기울어갑니다. 다윗왕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본인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사람을 보내 물어보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하라는 기회인 줄 알고 즉시 하나님

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모압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병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도 오히려 우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셔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토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왕하1:3-4)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든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화가 더 많이 나서서 아하시야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쟁이에게 미래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에게 물으러 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어려운 명령도 순종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왕이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엘리야가 전하려고 즉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 아합보다 더 악독한 아하시야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데도 즉시 순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원로칼럼

목사와 여성도



정성구 목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화란의 위대한 대 칼빈주의 자이고 대 설교자, 목회자이자, 대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다. 카이퍼는 25세에 명문 라이덴 대학교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박사(Dr. Theol)학위를 받았다.

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도전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가 핑신도의 충고를 듣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카이퍼 목사는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발투스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카이퍼 목사는 발투스의 진심어린 충고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설교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물론 카이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칼빈과 라스코의 교회론 비교연구"란 제목으로 썼다. 그래서 카이퍼는 당대에 칼빈연구의 대가였다. 이미 그는 학생시절에 "칼빈과 라스코"라 논문으로 당대 최고의 금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지 카이퍼는 칼빈연구의 대가였지만 칼빈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카이퍼는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돌아서서 정통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도 세계 많은 학자들 가운데 칼빈연구의 대가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칼빈주의자는 아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칼빈의 개인과 그의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때마다 칼빈을 말하거나 개혁주의를 외치는 중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다. 결국 카이퍼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여성도의 충고를 듣고 정통 칼빈주의 사상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카이퍼는 19세기 칼빈주의 부흥운동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카이퍼는 '핑신도가 말하는 충고'로, 목사는 복음 곧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라는 역사적 개혁주의 사상으로 돌아섰다. 그의 칼빈주의 사상은 칼빈의 신학사상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였다. 특히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 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칼빈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당대의 명문 라이덴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 소지자인 카이퍼 목사에게 당당히 진심으로 충고했던 발투스를 생각해보자. 카이퍼는 그의 일생 동안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충고를 해주었던 발투스를 끝까지 잊지 않았다. 여성도의 충고를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카이퍼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이시고 크게 쓰신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복음에서 떨어진 설교, 자율주의적 설교, 심리적 설교, 비성경적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 자유주의적 설교에도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가는 것이 참으로 걱정이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여, 자신의 사상과 경험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곧 부흥이고 성공이라고 우기고 포장한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젊은 여성도 발투스의 충고를 듣고, 철저한 개혁주의자로 방향을 바꾼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를 생각한다.

skc0727@yahoo.com

주전 120년경 초기의 랍비 현자 축에 드는 예호슈아 벤 페라키아는 이런 지혜의 말을 했다. "각 사람을 그들에게 가장 조절된 저울로 판단하라." 이 말을 들으면 옛날 시장에서 상인이 양팔 저울의 한쪽 접시에 곡식을 부어 무게 추를 얹은 반대편 접시와 평형을 맞추던 광경이 떠오른다. 마음씨 좋은 가게주인은 접시가 균형점을 넘어 기울 때까지 덤을 얹어준다. 즉 랍비의 말은 남의 행위를 너그러운 편으로 '가중조절'하라는 뜻이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행동 이면에서 숨은 호의(혹은 악의)를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이의 동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반응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우호적 판단'을 하려고 습관적으로 노력했을 때 더 친절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최악이 아닌 최선을 기대할 때 우리 태도는 더 다정다감해진다.

판단의 저울에서 손 떼는 리더가 되라!

리더십저널, En-Gedi Resource Center, 로이스 티어베르그에게 듣는 예수님의 지혜 소개

부정적 판단의 모습들

부정적 판단은 상대방에 대해 최악을 상정하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늘 비판적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것을 찾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가트맨은 수천 쌍의 부부와 면담하면서 어떤 결혼이 지속하고 어떤 결혼이 실패했는가를 추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무대론 말발굽 소리를 내며 등장하는 '4대 재앙'이 있다고 발견했다. 바로 방어성, 벽 쌓기, 비난, 경멸이다. 이 중에 다른 것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 바로 '경멸'이다. 이 독한 감정

서 살았던 힐렌의 해안은 이렇다. "당신 자신이 그 처지가 되기 전까지는 동료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 남의 죄는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역정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사람은 행위로 드러난 죄는 분별할 수

랍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판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이 죄인이고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한

우리는 예수님이 설파하신



상대방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너그러운 편으로 '가중조절' 습관적으로 '우호적 판단' 노력할 때 더 친절하고 인내할 수 있어

은 모욕, 욕설, 비아냥, 조롱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가트맨이 정의한 '비난'은 상대방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이기적이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아이들에게 못되게 굴어요." 그러나 비난보다 훨씬 나쁜 게 경멸이다. 경멸은 죄를 폭로할 뿐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경멸은 정죄의 최종 결과물이며, 상대방에게 무자비한 판단을 해왔던 세월에서 비롯된다.

판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분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시대보다 수십 년 앞

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온전한 동기를 아신다.

우리는 외적 잘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의사봉을 내리치며 그 인격 전체에 하나님의 정죄를 선포할 자격은 없다.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끝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고전 4:5).

너와 똑같다

'우호적 판단하기'가 현명한 발상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호적 판단은 사

옴 계명을 듣는다.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당신과 이웃, 공히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지만 또한 둘 다 죄를 범한 자들이다.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최선을 염두에 두고 우호적으로 판단하라"는 뜻보다는 "내가 죄인임을 너도 알고 있으니 자비롭게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남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가 유일하게 아는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다. 고로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한다면, 나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